

코스피	코스닥
2548.86 (+2.56)	719.41 (-10.28)
금리 (미국 9년)	환율 (원·달러)
2.316 (+0.011)	1443.55 (+7.05)



행정력·위기관리·정권교체열망... ‘구대명’ 만들었다

〈지지율 90% 육박〉

이재명, 압도적 지지 비결은

계엄해제 리더십에 민주진영 결집
내란 극복·경제 회복 기대감 높여
성남·경기지사 정책 실행력 부각

더불어민주당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최종 선출된 이재명 후보는 당내에 ‘계파가 없는’ 정치인이었다. 특정 유력 정치인과의 인연을 거론하며 정치를 하지 않았던 이 후보는 당권을 장악하고, 이제는 대권을 코앞에 두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관련기사 6면>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전날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총 득표율 89.77%를 얻으면서 본선 후보로 확정됐다.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는 50.29%의 득표율로 본선 진출에 성공했는데, 4년 전에 비해 득표율이 대폭 오른 것이다.

계다가 이같은 득표율은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도 달성하지 못했다. 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 정국을 거치며 대세론을 굳혔고, 이재명 후보 역시 계엄 정국을 통해 민주진영의 ‘리더’로 인정받은 상황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4년 전 50%에서 현재 90%에 육박하는 지지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계엄 당일 보여준 이 후보의 리더십 때문이라는 평가가 많다. 계엄 선포 당시 국회로 이동하는 차량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국민들에게 여의도 국회로 나와달라고 호소했고, 국회 앞에 모인 시민들 덕에 계엄해제결의안

이 빠르게 통과될 수 있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개인 비리, 사인(私人)의 국정농단 등이 사유였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국헌문란이었다. 이는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는 민주주의의 회복, 내란 극복이 우선 과제라는 인식을 심어줬고, 이 후보를 압도적으로 ‘밀어주는’ 것으로 의사를 표시한 셈이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로이터 통신은 “이 후보를 향한 압도적 지지의 일등공신은 윤 전 대통령”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다만 이 후보가 강력한 지지를 끌어낸 비결은 당내의 ‘내란 극복·정권교체’ 열망뿐은 아니라는 이야기도 있다.

이 후보는 성남시장 재임 당시 무상교복·공공산후조리 지원, 청년배당 등 보편적 복지 사업을 펼치며 주목을 끌었다. 경기지사를 역임할 때는 기본소득, 지역화폐 등 다양한 정책을 실시했다. 그간 민주당에서 제시한 복지와는 다소 결이 다르지만, 생활상으로 와닿을 수 있는 정책들이다.

‘강력한 행정집행’도 화제였다. 2020년 코로나19 전염이 극심하던 당시,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시설을 강제 봉쇄하고, 방역 목적의 강제 조사를 실시하는 모습은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특히 당시 교주 이만희 총회장의 검체를 직접 채취하겠다는 신천지 연수원으로 향한 모습은 전국에 생중계되기도 했다.

경기도 계곡 불법 영업 정비 역시 강력한 행정집행의 상징이었다. 다만 경기지사였던 이 후보는 당시 계곡에서 영업하던 상인들과 직접 만나, 그들의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 13억 시대

28일 KB국민은행 KB부동산의 4월 전국주택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월 대비 0.98% 올라 전월(0.65%)보다 상승폭을 키우며 평균 매매가격이 13억원을 돌파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의견을 청취했다. 당시 차분하게 상인들의 의견을 경청한 영상이 화제가 되면서 이 후보에 대한 ‘강성’ 이미지를 바꾸는 계기가 됐다. 이 후보는 이같은 행보를 통해 ‘유능한 행정가’의 모습을 보여줬고, 지지자들에게 “일을 잘 할 것 같다”는 인식을 심어준 셈이다.

결국 이 후보에 대한 지지는 ‘내란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강력히 추진하기를 바라는 지지자들의 마음이라고 볼 수 있다. 이같은 현상에 민주당 관계자는 “이 후보가 압도적 지지를 받게 된 것은 지지체장 시절 보여준 행정력으로 내란 극복과 경제회복을 이끌어낼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수소전기차 5만대 시대 눈앞 열악한 충전소 인프라는 여전

현대차 넥쏘 신차 출시로 보급 속도
원활한 운행 위해 충전소 확대 시급
세제혜택·규제완화 등 지원 절실

‘궁극의 친환경차’로 불리는 수소전기차(FCEV)의 국내 보급 대수가 4만대에 육박하면서 도심 충전소 확충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수소전기차는 배출가스 대신 물만 나오는 친환경차로 현재 전 세계에서 양산형 승용 수소전기차를 출시한 브랜드는 한국(현대자동차)과 일본(도요타, 혼다)뿐이다. 세계 각국이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정체)에 빠진 상태에서 수소 전기차의 수요도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28일 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국내 수소전기차 누적 보급 대수는 3만 9216대를 기록했다. 올해 1만 3000여 대의 수소전기차에 정부 구매 보조금이 확정된 점을 고려하면 연내 누적 5만대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국내 수소전기차는 지난 2018년 현대차 수소전기차 ‘넥쏘’가 출시되면서 관련 시장이 본격 형성됐다. 이후 누적 보급 대수는 2020년 1만 대를 넘어섰고 2023년에는 3만여 대에 도달했다. 올해에는 넥쏘 후속 모델인 ‘디 올 뉴 넥쏘’ 출시와 함께 환경부가 수소전기 승용차(1만1000여 대), 버스(2000여 대)에 총 7218억원의 구매 보조금을 확정함에 따라 수소전기차 보급은 5만대를 넘

어설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열악한 수소 인프라 문제는 수소전기차 보급에 발목을 잡고 있다. 업계에서는 수소 인프라 구축을 위해 충전사업자의 도심 부지 확보나 경영난을 돕기 위한 세제 혜택, 인허가 규제 완화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달 말 기준 전국에 설치된 수소충전소는 총 218개소다. 수소산업 전문가들은 “일부 도심 충전소는 이용자들의 충전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예약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면서도 “수소전기차 대중화를 위해서는 이용자들이 일상생활에서 내연기관 차량처럼 원활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충전소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현대차가 상대적으로 설치에 제약이 적은 ‘고압 이동형 수소충전소’를 개발하면서 도심 수소충전소 확충에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충전사업자의 도심 내 부지 확보와 경영상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세제혜택 등의 지원 정책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수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전담기관 설립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현재 국내 수소 유통망 관리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관리원, 한국가스공사 등 여러 부처·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수소 에너지 가격 안정화를 목적으로 공급망 전체를 총괄 관리하는 기관은 없다. /양성운 기자 ysw@

삼바, 수주액 3조 육박... 연매출 5조 ‘순항’

유럽서 2조 규모 초대형 수주 이어
美 제약사와 7373억 CMO 계약
수요 대응위해 5공장 가동 본격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올해 두 건의 수주 계약으로 연간 수주액 3조원에 성큼 다가서며 지난해 수주 실적의 절반을 달성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25년 두 번째 수주 성공으로 미국 소재 제약사와 7373억원 수준의 의약품 위탁생산계약(CMO)을 체결했다고 28일 공시했다. 해당 계약 규모는 지난해 총 수주액 5조4035억원의 약 14%에 달한다. 계약 기간은 오는 2031년 12월 31일까지이며 고객사 및 제품명은 경영상 비밀유

지 사유로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신규 계약을 포함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해 들어 총 2조8120억원의 누적 수주액을 올리며 지난해 수주액의 52%를 채웠다.

앞서 지난 1월에는 유럽 소재 제약사와 2조747억원의 초대형 의약품 위탁생산(CMO)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수주 성과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 1월 계약의 경우, 지난해 전체 수주액의 40%를 차지하는 규모로 창립 이래 역대 최대 기록이기도 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견조한 수주 실적을 바탕으로 한 고성장에 힘입어 올해 연간 매출 5조원 돌파를 목표로 하고 있다. 1분기에만 연결기준 1조2983

억원의 매출과, 4867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각각 전년 동기 대비 37%, 120% 증가했고 역대 최대 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러한 기업 성장세를 유지하고 고객 만족을 극대화하는 데 역량을 쏟고 있다.

우선 글로벌 의약품 시장에서 증가하는 바이오의약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인 투자를 활발히 한다. 특히 이달부터 5공장을 본격 가동하며 제2바이오캠퍼스 시대를 열었고, 오는 2032년까지 5공장도 동일한 규모의 공장을 3개 추가할 계획이다. 2027년 준공을 목표로 6공장 착공을 검토하는 등 증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배현진 “무용진흥법 제정될 수 있도록 역할 할 것”... 공청회 열려
▲홍준표 “증범죄자가 나라를 통치하는 게 상식에 맞는다”
/사진 뉴스1

▲국민의힘, ‘성장과통합’ 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고발
▲민주 “이재명 암살단 모집·살해예고 글에 법적 조치 예정”

▲민주 ‘기재부 개편’ 토론회... “예산·집행 기능 쪼개야”
▲국힘 “이재명, ‘피해자 코스프레’ 멈추고 반성·책임 보여야”

한덕수 대선 출마설... 최상목, 韓·美 관세협상 선봉장 서나

한 총리실 비서실장 사직서 제출
최 부총리, 한달간 대행직 메울 듯
한·미협상 일사천리 진행도 가능

향후 양국간 실무협의 예정에
산업부문별 주고받기 등도 권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미 간 관세협상의 최종 결정권을 가질 가능성이 커졌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비서실장이 28일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한 대행의 6·3대선 출마 여부를 둘러싼 퍼즐이 꽤 맞춰지고 있다. 그의 거취 표명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곳곳에서 흘러나온다.

만약 한 대행이 공직에서 물러나 대권 도전을 선언한다면 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다시 넘겨받는다. 앞서 지난해 12월27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돼 최 부총리가 권한대행에 오른 바 있다.

이후 최 부총리는 3월24일 헌법재판소의 한 총리 탄핵안 기각 결정에 따라 대행 자리에서 내려왔다. 이제 한 달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뉴시스

만에 대통령 권한대행을 또다시 맡게 될 운명에 놓였다.

출마가 가능한 공직자 사퇴 시한은 5월4일이다. 한 대행이 그 이전에 사퇴하면 최 부총리가 6월3일까지 한 달간 그

자리를 메운다. 문제는 지난 24일 시작된 미국과의 관세협상이다. 최 부총리는 지난 주 1회차 양자 간 협상을 위해 워싱턴 D.C. 재무부 청사에 다녀왔다.

한 대행의 대선전 합류 시 최 부총리가

모든 권한을 쥐게 된다. 대행직에 더해 본래의 기재부 장관 역할도 동시에 수행하기 때문에 미국과의 협상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도 있다. 다만, 그는 최종 합의는 새 정부로 넘기는 게 맞다는 논리를 펴왔다. 향후 이 같은 입장을 바꾸지 않고 협상에 임할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일단 양국 재무장관 간 회동을 마쳤고 향후 실무협의가 예정돼 있다. 대행직 수행이 현실화할 시 산업 부문별 주고받기에 대한 승인 권한을 최 부총리가 줘야 한다. 테이블에 오른 의제와는 별도로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 주한미군 주둔비용 문제도 그가 결정 내리게 된다.

이날 보도된 한 대행의 외신 인터뷰가 아울러 주목받고 있다. 한 대행은 영국 이코노미스트와 가진 인터뷰에서 “미국과의 협력적 협상을 통해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거론한 것과 관련해 “미군의 주둔은 우리한테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은 어떤 문제든

상대와의 충돌을 피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했다.

앞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4월20일 치에도 한 대행 인터뷰 기사가 실렸다. 그때도 이번에도 그는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이제는 정치권도, 다수 국민도 그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는 시선을 넘어 대권 도전을 기정 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최 부총리는 지난 25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외 신인도 차원에서 정치 불확실성이 낮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한 대행의 출마가 정치적 불확실성을 확대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다만 ‘한 총리가 출마할 시 이에 대해 평가해 달라’라는 질문에는 “노 코멘트”라며 즉답을 피했다.

최 부총리의 발언과 관련해, 이른바 ‘대행의 대행’이 국정 운영을 맡는 상황이 반복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말한 것이라는 해석도 일각에서 나온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韓·美, 7월 패키지 공감대 이번주 작업반 구성 완료”

산업부 ‘2+2 대미 통상협의’ 결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한 한미 통상협상 테이블에 오를 의제의 틀이 내주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백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2+2 대미 통상협의’ 방미 결과를 밝혔다.

“차주부터 본격 작업반 회의 개시
비관세 포함 6개 내외 구성될 듯”

6월3일 조기대선·정부교체 예정에
“대선 전 의사결정 없을 것” 못 박아

박 차관은 “(방미중)미측과의 협의에서 산업부와 USTR(미국 무역대표부)은 7월8일 협상 시한까지 줄라이 패키지(July Package, 7월 일괄타결)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며 “이번 주 중에 기술협의를 개시하고, 주 중후반 기술협의를 통해 작업반 구성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르면 차주부터 본격적인 작업반 회의가 개시될 예정”이라며 “작업반은 미측과 협의를 거쳐 비관세를 포함해 6개 내외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기술협의에는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이 총괄을 맡고 각 작업반에는 관계 부처가 대거 참여하게 된다.

그리어 미국 USTR 대표가 APEC 통상장관회의(5월 15~16일) 참석차 방한하는 5월 중순에는 장관급 협의가 이어지며, 작업반 구성에 대한 완성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박 차관은 “그리어 USTR 대표 방한

계획에 장관급 협의를 통해 각 작업반별 진전 사항을 평가하고 필요한 지침을 내릴 예정”이라며 “이번 행사는 AP EC을 넘어서 관세 협상의 큰 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술협의를 통해 협의의 윤곽이 확정되고 통상조약법 절차 이행의 필요가 생기면 즉각 관련 절차에 착수하도록 하겠다”며 “협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는 국회와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다만, 6월 3일 조기대선과 정부 교체가 예정된 만큼 대선 전 협상의 제 등 의사 결정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박 차관은 “줄라이 패키지는 종합적으로 답한다는 의미로 이혼상 5월말 또는 6월초에 의사 결정이 끝나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정형화된 협상이 아니라 비정형화된 협상이라 틀을 짜는 것도 오래 걸린다”며 “협상을 어떻게 끌어낼 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더 타이탄 스케줄로 일정을 소화하는 것 만으로도 70일만에 결실을 맺기에 도전적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양국 관심 사항이 명확하고 의견이 없이 속도를 낼 수 있는 것은 속도를 내고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선 이를 감안해서 무시하지 않겠다”며 “다음 정부가 이어 달리기를 하는데 있어서 현 정부가 부담을 줘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경제안보 아젠다와 관련해 대중국 제재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특정국을 대상으로 특정한 조치를 취하는데 대해 동맹국 동참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외신 보도가 있었지만, 그런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간디 솔리스티안토 전 주한인도네시아 대사(앞줄 왼쪽 일곱번째부터), 체첸 헤리완 주한인도네시아대사 내정자, 신타 캅타니 인니경총(APIN DO) 회장, 토도투아 파사리부 투자부 차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박수덕 주인도네시아한국대사대리,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 성김 현대차 사장 등 한-인니 주요 관계자들이 28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랭렐 호텔에서 열린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동빈 “韓 경제계, 신재생에너지 등 인니 기업과 협력”

한경협, 인니 신정부와 협력 모색
신동빈 단장으로 ‘민간 사절단’ 파견

“인도네시아 역사상 최대규모 FDI
대규모 석화단지, 1.4만명 직접고용”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이끄는 대규모 민간사절단이 인도네시아 프라보워 신정부와의 네트워크 강화에 나섰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지난해 10월 출범한 인도네시아 프라보워 신정부와 한국 재계와의 전략적 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28, 29일 일정으로 인도네시아에 민간 사절단을 파견했다. 민간 차원은 물론이고, 정부 차원에서도 프라보워 정부(지난해 10월 출범)와 첫 공식교류다.

이번 사절단은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 김상현 롯데쇼핑 부회장,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부장, 성김 현대차 사장, SK플라즈마 김승주 사장, 천성래 포스코홀딩스 본부장, 송호준 에코프로 대표이사, 김영주 종근당 대표이사, 이현 삼성전자 부사장, 허진수 SPC그룹 사장 등 인도네시아 진출 주요 기업의 고위급 기업인 24인이 참여했다.

사절단 단장인 신동빈 회장은 28일 자카르타 메르데카 대통령궁에서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 주최로 열린 오찬 간담회에서 “한국 경제계는 프라보워 대통령이 중점 육성 중인 다운스트림 산업,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 인도네시아 기업들과 긴밀히 협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롯데의 현지 대규모 석유화학단지 조성을 언급하며, “해당 프로젝트가 인도네시아 역사상 최대 규모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사례로, 약 1만4000개의 직접 고용 창출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국사절단 기업들은 이미 인도네시아에 총 270조 루피아(약 23조원) 규모의 투자를 완료했으며, 첨단제조업, 광물자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가 투자를 진행할 계획을 밝혔다. 롯데쇼핑은 유통, 현대차는 전기차 생태계, 한화손해보험은 금융, KCC글라스는 유리산업 분야에서 대규모 신규 투자를 준비 중이다. 이외에 종근당(제약), HD현대사이트솔루션(기계), SPC(식품), 메가존클라우드(AI) 등도 추가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사절단은 인도네시아 정부와의 면담에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인도네시아에 32%의 수입관세를 부과한 것과 관련해 현지 진출 한국 기업들이 고율의 관세를 적용받지 않도록 인도네시아 정부의 적극적인 외교적 조율과 지원을 요청했다.

또 올 2월 출범한 국부펀드 ‘다난타라’와의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다난타라는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의 경제구상 실현을 위한 펀드로, 국가 핵심 프로젝트에 200억 달러(약 28조 6000억 원)를 투자할 계획이다. 한국 사절단은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인프라·에너지·배터리 등 정부 주도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이 적극 협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김보만 한경협 국제본부장은 “이번 사절단을 통해 프라보워 신정부 출범 이후 양국 간 경제협력의 새로운 모멘텀을 마련했다”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인니경총과 양국 기업인 간 협력 확대를 위한 실질적 플랫폼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경협은 앞으로도 양국 간 교역·투자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양성운 기자 ysw@

정치권, 가상자산 정책 마련 속도… 산업 육성 vs 투자자 보호

〈與〉

〈野〉

6·3 조기 대선

與野, 가상자산 의제 선점 돌입
국민의힘, 제도화 등 7대 공약 발표
민주당, 디지털자산기본법 초안 공개

오는 6월 3일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가상자산 관련 의제 선점에 돌입했다. 1600만명에 달하는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표심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7대 공약’을 공개해 가상자산 산업 성장을 목표로 제시했고, 민주당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안과 산업 진흥책을 포함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준비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당 차원의 ‘디지털자산 규제 해소를 위한 가상자산 7대 공약’을 공개했다. ▲1거래소 1은행 체제 폐기 ▲기업·기관 가상자산 거래 제도화 ▲현물 ETF 거래 허용 ▲토론 증권 법제화 ▲스테이블코인 체계 도입 ▲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 제정 ▲과세 체계 마련 ▲가상자산 산업 허브 육성 등 규제 축소와 제도화에 중점을 뒀다.

앞서 지난 24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디지털자산기본법 리뷰 세미나’를 개최하고,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초안을 공개했다. ▲디지털자산업 정의 및 육성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 ▲발행신고서 제도 ▲발행·유통 공시 분리 규율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안 및 산업 진흥책을 포함했다. 전문가 및 업



국민의힘은 28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당 차원의 ‘디지털자산 규제 해소를 위한 가상자산 7대 공약’을 공개했다.

계 의견을 수렴해 법안 내용을 보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여·야가 잇달아 가상자산과 관련된 정책안을 공개하는 것은 오는 6월 3일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가상자산과 관련된 의제를 선점하겠다는 의도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기준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 수는 1629만명에 달한다. 지난해 3월 1400만명을 돌파한 지 11개월 만에 200만명 이상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가상자산 거래액도 일평균 6조원에 육박했다.

가상자산 거래 규모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경쟁력은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에 비해 뒤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다. 각국들이 일반 법인에도 투자 목적의 가상자산 거래를 허용하고 관련법을 개정하는 등 규제 완화와 제도화에 힘쓰는

반면, ‘자금세탁 방지’에 주안점을 둔 국내의 가상자산 관련 규제는 수년 동안 제자리걸음을 해서다.

여·야가 가상자산 정책 마련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일부 후보자의 대선 공약에도 가상자산 공약이 등장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지난 27일 “가상자산 시장 및 산업을 육성해 세계 최대 가상자산산업 국가로 만들겠다”고 밝혔고, 홍준표 후보도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 및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공약으로



지난 3월 5일 더불어민주당 정부위원회가 주최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에서 민병덕 민주당 의원(앞줄 가운데)과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제시했다.

업계에서는 국내 가상자산 산업이 성숙기에 접어든 만큼 입법을 위한 활발한 정책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정책 방향성 설정을 위해 정치권 뿐만 아니라 전문가와 업계의 광범위한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국내 가상자산 산업은 초기의 장밋빛 기대와 과도한 우려가 교차하던 시기를 넘어 제도화 과정을 하나씩 밟는 시점에 진입했다”라며 “점진적인

제도 개선과 관련 기술혁신이 어우러지면 (가상자산 산업이) 좀 더 성숙한 발전단계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자산 제도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고, 많은 과제들은 당연히 추후 제도화 과정에서 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각종 채널을 통해 제기되는 이슈에 대해서는 국회, 당국, 업계, 전문가, 관계자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이 필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교보생명, SBI저축은행 인수 금융지주사 전환 속도낸다

인수금액 9000억… 단계별 지분 취득
“손보사 인수 등 비보험 금융사업 확장”

교보생명이 1등 저축은행을 인수한다. 또 손보사 인수합병(M&A)을 통해 금융지주사 전환을 추진한다.

교보생명은 28일 이사회를 열고 SBI저축은행 지분 50%+1주를 오는 2026년 10월까지 단계적으로 인수키로 결의했다. SBI저축은행 최대주주인 SBI홀딩스로부터 SBI저축은행 지분을 매입한다. 인수금액은 약 9000억원이다.

SBI저축은행은 2024년말 기준으로 총자산 14조289억원, 자본총계 1조

8995억원, 거래 고객 172만명을 보유한 업계 1위 저축은행이다. 지난 2021년 3495억원, 2022년 3284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해 안정적인 수익성을 유지해왔다. 2023년과 2024년에 경기 침체 속에서 각각 891억원, 808억원의 순이익을 달성했다.

교보생명은 저축은행 운영 경험이 없는 점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지분을 취득할 예정이다. 우선 금융당국으로부터 대주주 승인을 받은 다음 하반기 중으로 30%(의결권 없는 자사주를 감안한 실제 의결권 지분 35.2%)의 지분을 취득할 예정이다. 이후 금융지주사 전환에 맞춰 2026년 10월말까지 50%+1주(의결권 58.7%)를 인수할 예정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오는 2027년부터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상당기간 공동경영을 할 계획”이라며 “1등 저축은행으로 키운 현 경영진을 교체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뜻밖선(매수청구권) 분쟁이 사실상 일단락되면서 금융지주 전환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며 “저축은행업 진출은 지주사 전환 추진과 사업포트폴리오 다각화 차원이며 향후 손해보험사 인수 등 비보험 금융사업으로의 영역 확대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광화문 교보생명 사옥 전경. /교보생명

/김주형 기자 gh471@

한국마사회

도심 속의 선물 같은 공간

렛츠런파크

부산경남

문의: 1566-3333

※구매상한선 준수 건전한 여가생활의 시작입니다.

“변해야 산다”… 주요기업, 사업·공급망 포트폴리오 쇄신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일로
자산 매각, 감량 경영 등 단행
“산업 구조조정 방향 고민해야”

‘트럼프발’ 관세전쟁으로 글로벌 경기하방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주요 기업들이 강력한 쇄신 정책에 돌입했다. 대내외 악재에서 생존하기 위해 포트폴리오 조정, 감량 경영 등을 단행하고 있지만 시장의 불안감은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의 고율관세 정책과 0%대 국내 경제성장률이 부각되면서 국내 산업계가 상대적 타격을 크게 받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제조업체 2107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우리 제조기업의 미국 관세 영향 조사’ 결과 ‘간접 영향권에 있다’고 응답한 기업이 46.3%로 나타났다. 미국에 직접 수출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내에서 미국 고율관세 영향을 받는 기업들도 상당수 존재한다는 뜻이다.



SK 서린사옥 전경

국내 주요 대기업들은 연초부터 사업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등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다.

SK그룹은 리밸런싱(구조조정) 일환으로 SK실트론을 매각한다. 매년 흑자를 기록한 ‘캐시카우’지만 SK그룹의 순차입금 및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한 결정으로 보인다. 지난해부터 계열사 매각을 통해 확보한 현금의 총 4조4459억원이다.

SK그룹의 2024년 연결기준 매출은 124조6904억원으로 2023년(128조7984



LG트윈타워 전경

억원) 대비 3.19% 줄었고 영업이익은 2조3552억원으로 2023년(4조7539억원) 대비 50.46% 급감했다. 무리한 외형 확장으로 중복된 사업이 발생했고, 덩치에 비해 실적이 나오지 않은 것이다.

LG그룹은 최근 계열사별로 저성과 사업에서 철수하거나 관련 사업을 매각하고 있다. LG화학은 중국의 한 분리막 생산기업과 추진하던 합작법인 설립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사장단 회의에서 ‘선택과 집중’을 강조한 이후 첫 구조조정 사례다.



포스코 본사 전경

또한 LG전자 에코솔루션(ES)사업 본부 산하의 전기차 충전기 사업 종료를 선언했고, LG에너지솔루션은 11조 원 규모의 인도네시아 배터리 밸류체인 가치사슬 구축 프로젝트를 철회하기로 했다.

포스코홀딩스는 올해 1분기 6개 자산을 매각해 총 2866억원의 자금을 확보했고, 연말까지 총 2조1000억원의 누적 현금 창출을 계획하고 있다. 철강 산업을 둘러싼 불확실한 여건 속에서 수익성 낮은 자산을 정리하고 현금을 확보

해 한 경기상황에 보수적으로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이밖에 한화솔루션도 전기차 충전 사업 철수, 현대제철은 현대IFC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이를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시선은 곱지 않은 않다.

부진한 주가 흐름과 경영진의 소통 부재에 대한 불만, 과도한 차입에 따른 빚 부담 등 일반 주주보다 대주주 이익 중심으로 의사 결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경제학자들은 글로벌 경기침체가 격화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산업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국내 산업계는 기술 투자, 업종별 구조조정이 시급한 상황으로 정부 재정을 통한 경제 성장이 필요하다”며 “성장률이 낮을 때는 연구개발에 집중하고 산업 구조조정 방향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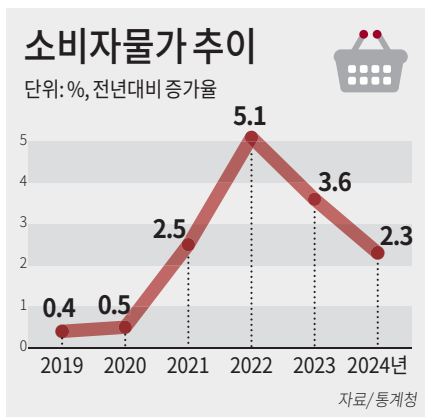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물가·금리 못 따라가는 소득… 금융시장 불안감 고조

가계차주 대출잔액 6분기 연속 증가
카드사, 리볼빙 등 연체율 지속 상승

제로(0) 성장의 시작은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는 데서부터 시작됐다.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6%까지 치솟던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여전히 2019년(0.4%) 물가보다 높은 수준이고, 물가 안정을 위해 울려퍼졌던 금리는 더 이상 내리지 못해 부채 상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정치 리스크와 미 트럼프의 관세정책은 체감경기를 낮춰 소비자들의 소비를 제약하고 있다.

28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9~12월) 1인당 명목 국민 총소득(GNI)은 전년 대비 1.2%(달러 기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시기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6% 올랐다. 소득이 오르는 것보다 물



가가 더 빨리 상승했다는 의미다.

빠르게 오른 물가는 소비자들의 소비를 위축시켰다. 지난해 재화 소비를 보여주는 지표인 소매판매액지수는 전년 대비 2.2% 줄었다. 소매판매액지수는 2022년(-0.3%)과 2023년(-1.4%)에 이어 3년 연속 감소했다.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장 기록이다.

품목별로 보면 승용차 등 내구재(-3.1%)와 음식료품 같은 비내구재(-1.4%), 의복을 포함한 준내구재(-3.7%) 모두 1년 전보다 판매가 줄었다.

높아진 대출금리도 소비에 악영향을 미쳤다. 가계대출 차주의 1인당 평균 대출 잔액은 9533만원이다. 1인당 대출잔액은 지난 2023년 2분기(9332만원) 이후 6분기 내내 늘었다.

지난해 12월 5대(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은행의 평균 대출금리는 4.58%다. 한은이 본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한 2021년 8월(연 2.87%)과 비교하면 1.7%포인트(p) 높다. 이자가 높아지면서 매달 내는 원리금 또한 늘어난다. 대출 상환 부담이 커지면서 소비를 줄였다는 설명이다.

특히 고물가 고금리로 인한 소비 감소는 중산층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 가계동향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소득 3분위(상위 40~60%) 가구의 소득에서 이자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8%를 기록했다. 3분위는 전체 가구 중 소득 수준이 상위 40~60%에 해당하는 중산층이다. 소득 대비 이자 비중은 4분위(2.7%), 1분위(2.3%), 2분위(2%), 5분위(2%) 순으로 뒤를 이었다. 고소득층도 저소득층도 아닌 3~4분위 중산층 가구가 상대적으로 이자 부담이 크다.

처분가능소득도 중산층을 중심으로 둔화하고 있다. 3분위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351만5000원으로 1년전보다 2%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 기간 5분위(상위 20%)가 4.9%와 1분위(하위 20%)가 4.6% 증가한 것과 비교된다.

중산층은 소비의 주요 주체이기 때문에 소비 여력이 줄어 들면 내수 시장이

위축되고 경기침체가 심화될 수 있다. 또 중산층이 취약계층으로 전락하고, 위축되면 미래세대의 경제성장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

현재 카드사의 연체율은 카드대금, 할부금, 리볼빙, 카드론, 신용대출 등에서 모두 상승한 상태다. KB국민카드의 연체율은 1.61로 1년 전(1.31%)보다 올랐고, 신한카드는 같은 기간 1.56%에서 1.61%로 상승했다.

하나카드는 1분기 연체율이 2.15%로 전년 동기(1.94%)대비 0.21%p 올랐고, 우리카드는 같은 기간 1.47%에서 1.87%로 상승했다.

신용카드 발급 기준은 신용 점수가 700점 이상이어야 하므로, 취약계층이 신용카드를 이용하기 어렵다. 중산층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면 정부는 복지지출 등을 늘려야 하는 부담을 겪게 된다”며 “중산층이 안정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저성장 만성화’ 우려 확산… 유통업계, 국면 타개책 고심

인력감축, 가격인상 등 위기 대응 나서

대한민국이 0%대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면서, 저성장 만성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 가계 기업등 경제 주체들의 살림은 갈수록 쪼그라들고 있다. 우선 정부 곳간이 말라간다.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2월 17조9000억원 나라살림 적자를 냈다.

물가상승에 미치지 못하는 소득 수준은 뒷걸음질이다. IMF는 올해 한국의 1인당 GDP를 3만4642달러로 하향 조정했다. 2022년(3만4822달러)보다도 낮다.

유통 기업들은 내수 시장 최전선에

있는 만큼 저성장으로 인한 시장 타격을 그대로 맞고 있는 모양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내 총생산(GDP)가 올해 1분기 -0.2%로 떨어지면서, 소비 시장과 그대로 맞닿아 있는 유통업계가 위기 국면 타개책을 고심하고 나섰다.

전반적인 대응 기조는 외형 줄이기다. 대표적으로 최근 롯데그룹은 자회사별 희망퇴직을 단행한 것에 그치지 않고 전 계열사 직무급제 도입을 검토하면서, 인력 효율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면세업계 상황 역시 심각하다. 저성장 국면에 국내외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자 실적 부진에 빠진 것이다.

실제 최근 나이스 신용평가사는 호텔

신라 장기 신용등급을 안정적(Stable)에서 부정적(Negative)로 하향 조정했다. 면세부문의 저조한 영업실적으로 영업수익성 회복이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이에 면세점도 비효율 자산을 매각하고, 희망퇴직을 통해 인력 감축을 단행했다. 대표적으로 현대면세점은 희망퇴직과 동대문점 매장 폐점, 시내 면세점 운영 축소 등을 동시에 결정하면서 본격적인 경영 효율화 추진에 나섰다.

마트와 같은 오프라인 유통 채널도 온라인 시장에 밀려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다. 실제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지난 2월 유통업체 매출은 전년 동월 대비 백화점은 -18.8%, 백화점은 -3.6%,

편의점은 -4.6% 감소세를 보였다.

지속되는 침체 국면에 물가가 전방위로 오르면서, 개인 역시 긴축 상황에 놓였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6.29로 전년 동월 대비 2.1% 증가했다. 그 중에서도 음식 및 숙박이 3.0%,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가 2.4% 올랐으며, 의류 및 신발 가격이 2.0% 상승했다.

이같은 돈백경화현상에 유통기업들은 일제히 가격 상승을 단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코카콜라음료는 스프라이트, 미네타이드 등 일부 품목 출고가를 내달 1일부터 평균 5.5% 인상한다.

담배 가격도 오른다. 업계에 따르면, 일본계 담배회사인 JTI코리아는 내달 1일부터 담배 가격을 최대 200원 인상한다. 대표적인 인상 품목은 ‘메비우스 엘비에스(LBS) 시리즈 5종’과 ‘메비우

스 이스타일 6’, ‘이스타일 3’, ‘카멜 블루’와 ‘카멜 필터’ 등이다. JTI코리아의 가격 인상은 10년 만이다.

대형 부티 업계도 가격 인상 행렬에 동참한다. 아모레퍼시픽의 럭셔리 브랜드 설화수는 자음2중 세트 가격을 14만원에서 15만원으로 7% 인상했다. 샴푸, 바디워시 등 생활용품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는 비온드는 13개 제품의 가격을 최대 2000원 올린 데 이어 오는 5월에는 4개 제품 가격을 최대 1000원 인상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의 불확실성이 너무 커져 유통가는 지금 전반적으로 긴축 경영 상황”이라며 “경영 효율화로 대응에 나서고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지 않는 이상 한계는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이청하·안재선기자 mlee236@

KB 금융그룹



세상을 바꾸는 금융

KB국민은행과 모니모의 만남 최고 연 4.0%

(2백만 원 이하, 세전)



파킹통장의 새로운 기준이 되다 모니모 KB 매일이자 통장



파킹통장 금리
최고 연 4.0%
(2백만 원 이하, 세전)



매일 이자
바로 받기
(모니모 앱에 한함)



이체/출금
수수료 무료

[모니모 KB 매일이자 통장 유의사항]

- 이 통장은 삼성카드(주)가 운영하는 모니모 앱 페이지에 연계된 모니모 KB 매일이자 통장으로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 모니모 앱 해지(회원탈퇴) 또는 혁신 금융 서비스 종료 시 상품명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입대상은 만 17세 이상의 실명의 개인(1인 1계좌)이며,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저축예금)입니다.
 - 이 상품은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내용을 반영하여 신규 계좌 수를 22.5만좌로 제한합니다.
 - 적용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2025.4.23 기준, 세금공제 전)
 - ※기본금리 연 0.1%(결산일 현재 영업점 및 KB국민은행 홈페이지에 고시한 예금과목별 기본이율 적용)
 - ※우대금리: 연 3.9%p
 - *적용대상: 이 통장을 최초 가입한 경우만 제공하며 해지 후 재가입하거나 상품명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공불가.
 - ※적용기간: 최초 가입일(통장 개설일)로부터 1년 이내
 - ※적용한도: 매일의 평균잔액 중 2백만원 이하의 금액까지는 기본금리와 우대금리를 합산 적용하며, 2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기본금리만 적용
 - 이자는 매월 제2금요일 또는 고객이 직접 이자지급 요청한 전일 결산해 원금에 더합니다. 예금의 이자는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부터는 이자를 원금에 더하지 않고, 계좌해지 또는 추가 입출금 거래 발생일의 다음 결산일에 일괄 계산해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상품, 서비스 가입 전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KB국민은행 고객센터(1588-9999)로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모니모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은행연합회 심의필 제2025-04172호
※KB국민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5-1658호(2025.04.23), 유효기간 2025.04.23.~2026.03.31.까지

이재명, 대선후보 첫 일정 SK하이닉스… ‘경제·통합’ 강조

AI메모리반도체 기업간담회 가져
미래 첨단산업 육성 등 의견 청취

현충원서 전 대통령 묘역 참배
“지금 당장 급한 것 ‘국민 통합’”
‘보수책사’ 윤여준 전 장관 영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선 후보가 28일 반도체 공약을 발표하고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를 방문해 AI반도체 관련 간담회를 갖는 등 ‘경제와 성장’ 이미지를 부각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전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압도적 초격차·초기술로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를 만들겠다”며 반도체 공약을 내놔다. 그는 ▲반도체 특별법 신속 제정 ▲반도체 세제 혜택 확대 ▲반도체 RE100 인프라 구축 및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신속 조성 ▲반도체 R&D(연구·개발)와 인재양성 전폭적 지원 등을 제안했다.

이 후보는 반도체 세제 혜택 확대와 관련해 “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반도체에는 최대 10% 생산세액공제를 적용해 반도체 기업에 힘을 실어주겠다”며 “또한 반도체 기업의 국내 유턴을 지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와 과노정(왼쪽 다섯번째)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이 28일 오후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에서 열린 ‘K-반도체’ AI메모리반도체 기업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해 공급망 생태계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엔 경기도 이천시 소재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에서 열린 ‘K-반도체’ AI메모리반도체 기업 간담회에서 “모든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걱정하고 있다”며 “최근 국제 무역 상황이 매우 악화되고 미국의 일방적 관세 인상 문제나 보호 무역주의가 수출 중심의 대한민국 경제에 엄청난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국가 경제라는 것이 기업 활동

에 의해서 유지될 수밖에 없는데, 국민들의 민생을 책임지는 정치도 경제 성장 발전에 총력을 다해야 될 때”라며 “그 중에서 미래 첨단 산업 육성 가장 중요 과제인데, 대한민국이 일정 정도 앞서나간다는 반도체 산업이 흑역라도 큰 타격없이 세계를 주도해나가도록 어떤 조치들이 필요한지 의견을 듣고 싶다”고 했다.

이 후보는 “(또한) 전력문제 때문에 (반도체 기업들이) 고생하는데 그문제도 듣고 싶고 첨단 기술 생태계 구축의 어떤 준비들이 필요할지 이야기를 비공개 (회

의) 시간에 들었으면 한다”며 “어려운 환경에서 대한민국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SK하이닉스가 상황을 잘 이겨내길 바라고 대한민국 경제의 주축으로 지속 성장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는 오전엔 서울 국립현충원에서 이승만·박정희·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이는 국민통합을 염두해둔 행보로 이 후보는 참배 후 취재진과 만나 “경제·안보·안전 모든 문제에 있어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힘을 최대한 하나로 모아야 한다”며 “소위 말하는 통합의 필요

성 가치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시기”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 참배에 대해 “저도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만 갖는 것은 아니다. 양민학살, 민주주의 파괴, 장기독재라는 어두운 면이 있고 한편으로 보면 근대화의 공도 있다”며 “음지 만큼 양지가 있고 동전은 앞면이 있는 거 처럼 뒷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다 물어두자는 얘기가 아니다. 평가는 평가대로 하고 공과는 공과대로 평가하되 지금 당장 급한 것은 국민 통합이고 국민의 에너지를 색깔과 차이를 넘어 다 한 곳에 모아 희망적인 미래와 세계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 후보는 ‘보수 책사’로 불리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영입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윤 전 장관은 평소에도 저에게 조언을 많이 해주시고 고언도 많이 해주신다”며 “윤 전 장관 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대표적인 인물로 윤 전 장관한테 ‘우리 선대위를 전체적으로 한번 맡아달라’고 부탁했는데 다행히 응해주셨다”라고 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소득 공백” vs “기업 부담”… 정년연장 합의점 찾아야

민주당, 고령자고용촉진법 발의
사업장 여건 따라 적절한 조치 가능
국민의힘 “정년 유연화·계속 고용제”
경제계, 기업경영에 부담 작용 가능성

정치권이 6·3 조기대선을 앞두고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연령 사이 ‘소득 공백’ 문제와 고령층의 추가 고용으로 늘어난 ‘기업 부담’ 사이 절충점을 찾아야 하는 과제를 떠안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연장하고 이를 시행한 사업주에게 혜택을 주는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한 반면, 국민의힘은 사업주가 정년 연장 혹은 퇴직근로자 재고용을 선택하게 하고 임금체계·근로기간을 개편할 수 있도록 선택하는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이용우
민주당 의원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촉진법) 제19조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용우, 박홍배, 박정, 이수진, 김주영, 한정에 민주당 의원은 근로자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고령자고용촉진법을 22대 국회 출범 이후 발의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년연장의 단계적 시행을 통해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연

령을 맞추려고 했다. 정년 연장 시행일 부터 2027년까지 정년을 63세, 2028년부터 2032년까지 64세, 2033년부터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식이다.

민주당 의원 다수 법안들엔 기업 부담을 고려해 정년연장 시에 기업이 취해야 할 조치가 ‘임금체계 개편’ 등으로 한정돼 있는 것을 ‘필요한 조치 등’으로 확장해 사업장 여건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정년을 연장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도 신설했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저출생 현상 해결을 위해 자녀를 2명 이상 둔 근로자의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정년 유연화와 계속 고용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발의된 법안은 국민의힘 노동위원장인

김위상 의원이 발의한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 1건이다. 김 의원 발의 법안에 따르면, 사업주에게 ‘계속고용 의무’를 부여하되, 구체적인 방식은 ‘정년 연장’과 ‘퇴직근로자 재고용’ 가운데 선택하도록 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까지 정년을 연장하는 경우 호봉급을 완화하는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하도록 하고, 재고용 시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근로기간과 임금을 종전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예산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에 따라 계속 고용 조치를 한 기업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지만, 민주당안과 달리 의무 조항은 아니다. 법 적용 시점은 1000명 이상 사업장과 공기업의 경우 법 시행 후 1년, 30명 미만 사업장은 법 시행 후 7년 등으

로 규모에 따라 다르다.

경제계는 연장한 정년을 고령자고용 촉진법에 명시하는 것보다 ‘기업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지난해 12월2일 김현석 부산대 교수가 수행한 ‘정년연장에 따른 비용 추정 및 시사점’ 연구용역 결과를 소개하며 “정년연장에 따른 60~64세 고용 비용 30조2000억원(2023년)을 기준으로 약 90만2000명의 청년층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정년연장이 투자 및 신규채용 위축 등에 미치는 영향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현석 교수는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에서 “경제환경 변화로 인해 고령자 고용 확대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정년연장은 기업경영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업종별 특성, 기업별 사정에 따라 고용 필요성이 다르므로, 정년과 관련한 사항은 기업 자율에 맡겨야 할 사안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태홍 기자

‘이재명 때리기’에 몰두한 국민의힘… ‘리버스 2007’ 비판

제대로 된 어젠다 없이 이재명 공격뿐
단일화 이후로 이재명 대세론 넘여야

국민의힘이 28일 대통령선거 2차 경선 당원투표·국민 여론조사를 마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경선은 이미 정치권에서 ‘예선전’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덕수 단일화론’ 때문이다.

만일 단일화를 통해 국민의힘 후보가 대선에 나서도 문제다. ‘이재명 대세론’을 넘여야 한다. 이때문에 국민의힘이 지난 2007년 대선 때 대통합민주신당과 같은 신세라는 한탄이 나온다.

이날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선보다 당권에만 눈먼 사람들. 나 홀로 고도(孤島)에서 대선 치르는 거 같다”며 “나는 2002년 노무현 대선을 꿈꾸는데, 다른 사람들은 2007년 정동영 대선을 하는 거 같다”고 적었다.

홍 후보가 말한 ‘2002년 노무현 대선’과 ‘2007년 정동영 대선’은 당시 민주진영의 후보가 겪은 정치적 상황을 뜻한다.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새천년민주당 후보는 후보에 선출됐으면서도,

당내 단일화 여론에 시달렸어야 했다. 한일월드컵 이후 정몽준 국민통합21 후보의 인기가 높아지고, 새천년민주당의 인기가 떨어진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당내엔 ‘후보단일화협의회’까지 생기며 노무현 후보를 압박했고, 노 후보는 단일화에 응했다. 그러나 예상을 뒤집고 단일화에 이긴 노 후보는 ‘이회창 대세론’을 꺼고 극적으로 대통령에 당선됐다.

반면 2007년은 ‘정권교체’ 여론이 높았다. 참여정부에 가해지는 비판의 강도가 높았고, 여당인 열린우리당마저 노무

현 당시 대통령을 공격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에 열린우리당 및 민주계열 정당은 ‘대통합민주신당’을 만들었다. 여기 경선에서 선출된 인사가 정동영 후보였다. 하지만 정권교체의 바람이 너무 센 나머지, 민주진영은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의혹만 이야기하기 바빴고, 이는 오히려 ‘이명박 대세론’을 굳혔다.

그러니 ‘나는 2002년 노무현’이라고 말한 것은 홍 후보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단일화를 할 경우, 극적으로 이길 수 있다는 뜻으로 보인다. 반면 다른 후보들은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후보의 의혹을 들춘 것처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만 공격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현재 국민의힘은 ‘리버스(reverse) 2007’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명박 대세론’이 강했던 시절, 대통합민주신당은 제대로 된 어젠다를 제시하지 못하고, BBK 의혹 등을 언급하기만 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후보들은 모두 ‘이재명을 막을 사람은 나’라고 주장한다. ‘한덕수 대세론’ 역시 보수진영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적할 수 있는 강력한 후보를 찾기 힘들자 제기된 것이다. 대선 이슈의 중심이 이 후보인 셈이다. 결국 국민의힘 후보가 ‘한덕수 단일화론’을 넘더라도, 이는 오히려 ‘이재명 대세론’을 굳힐 뿐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서예진 기자 syj@

금융으로
만나는 새로운 세상IBK가
바꾼 삶.

나는 요즘, 고민 없이 사는 중

국내에서도, 해외에서도
월 적립 한도 없이

IBK포인트3.8로
고민 없이
1.5% 적립 받는 삶,

내 일상이 되다



IBK포인트 3.8

카드 자세히 보기



이 모든 혜택은 카드앱에서

카드앱 설치하기



여신금융협회 심의필 제2025-C2b-04609호(2025.04.11.~2026.04.10.) 준법감사인 심의필 제2025-2390호(2025.04.02.) [유효기간:2026.03.31.]

·연회비:국내전용(BC) 3만 7천원, 해외겸용(VISA, Master) 3만 8천원 ·전월 실적 50만원 이상인 경우 혜택 제공 ·전월실적 및 통한 월 할인한도 등 자세한 사항은 IBK기업은행 홈페이지(www.ibk.co.kr) 및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체이자율: 회원별, 이용상품별 약정금리 + 최대 3%(법정 최고금리 20% 이내) ※ 단, 연체발생시점에 약정금리가 없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 - 일시불 거래 연체 시: 거래발생시점의 최소기간(2개월) 유이자 할부금리 - 무이자 할부 거래 연체 시: 거래발생시점의 동일한 할부 계약기간의 유이자 할부 금리 - 그 외의 경우: 약정금리는 상변상 상사법정이율과 상호금융가계자금대출금리* 중 높은 금리 적용*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금융기관 가중평균대출금리(신규 대출기준) ·상환능력에 비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정기간 원리금(또는 대출금, 납부대금 등)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발급이 부적절한 경우(연체금 보유, 개인신용평점 등 낮음) 카드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카드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를 지정된 대금 결제일에 상환합니다.

·금융상품 관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IBK기업은행

5월 황금연휴 여행 수요 급증… 보험업계, 맞춤 상품 러시

여행 예약 전년비 189% 증가

카카오페이손보, 단체여행 맞춤
‘함께하는 국내여행보험’ 출시

DB손보, 단체용 승합차 운전자
‘원데이자동차보험’ 보장 확대

캐롯손보, 항공편 지연 보장 특약

다가오는 5월 황금연휴를 앞두고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 상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족 단위 나들이부터 해외 장거리 여행까지 다양한 상품에 관심을 가질만 하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오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시작으로 어린이날, 대체휴일까지 이어지는 황금연휴를 맞아 국내의 여행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글로벌 여행 플랫폼 트립닷컴에 따르면 오는 5월 1~6일 국내 항공, 숙소, 투어·티켓 예약이 전년 동기 대비 189% 늘었다. 특히 호텔 예약은 전년 대비



Chat GPT가 생성한 연휴 여행 보험 관련 이미지.

354% 급증했다.

해외여행의 경우 하나투어는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출발하는 패키지 해외여행 예약인원이 전년 동기 대비 39% 늘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모두투어는 42% 증가했고 노랑풍선은 30% 가량 늘었다.

황금연휴를 앞두고 여행 수요가 급증하면서 예상치 못한 사고나 변수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상품도 주목받고

있다.

여행보험 강자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지난 3월 ‘함께하는 국내여행보험’ 상품을 선보였다. 이 상품은 출시 1개월 만에 누적 가입자 수 1만명을 돌파해 인기를 끌고 있다. 기본형, 안심형, 든든형 등 3개 플랜 모두 ▲상해사망·후유장해(1억 원) ▲질병사망 및 고도후유장해(1000만원) ▲배상책임·상해 비급여 실손의료비(3000만원) 등을 보장한다.

보험료는 가입 시 일시납 방식이다. 만약 20세(만 19세) 남성 50명과 여성 50명이 2일간 기본형에 가입할 경우 총 보험료는 6만7620원으로 1인당 약 680원이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해당 상품은 단체 가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한 것이 특징”이라며 “M.T, 워크숍, 관광, 소풍 등 단체 여행을 중심으로 이용이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DB손해보험은 장거리 이동이 많은 단체 여행객을 겨냥해 자동차보험을 강화했다.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를 대비해 보험가입 즉시 보장받을 수 있는 ‘프로미카 원데이자동차보험’을 개설했다. 개정을 통해 단체여행객들의 자동차보험 가입수요를 충족하고자 승합차종까지 대상차종을 확대했다. 최대 보험가입 일수는 7일에서 10일로 늘렸다. 법률비용 지원금 및 자동차상해 특약을 신설해 형사합의금을 최대 2억원

까지 제공한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원데이자동차보험 개정을 통해 업계 최고 수준의 상품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해외여행객을 겨냥한 특화 상품도 출시됐다. 캐롯손해보험은 항공기 지연·결항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지수형 항공기 지연 특약’을 선보였다. 지수형 특약은 사전에 정해진 지표(지수)가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보험금이 자동적으로 지급되는 특약이다.

캐롯손보의 지수형 항공기 지연 특약은 국내 공항에서 출발하는 국제선을 이용할 때 해당 항공편이 2시간 이상 지연되거나 결항될 경우 지연 시간에 비례해 최대 10만원(6시간 이상 지연 또는 결항 시)까지 정액 보험금을 지급한다.

캐롯손해보험 관계자는 “해당 특약은 간편하고 직관적인 보상 절차를 통해 고객이 여행 자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영업통 CEO 배치’ 카드사, 실적 희비… 삼성만 웃었다

1분기 신판잔액 삼성카드 8% 증가
우리 0.55%p, 하나 0.39%p 감소

‘영업통’을 최고경영자로 전면 배치했던 카드사가 1분기 주요 실적에서 희비가 엇갈렸다.

28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3월말 기준 카드사 8곳(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비씨카드)의 개인신용카드 일시불 잔액은 128조7544억원이다. 전년 대비 3조8116억원 증가했다. 개인신용카드 신용판매(M/S)는 카드사의 시장 점유율 지표로 활용한다.

1분기에 신판 잔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삼성카드다. 개인 신판잔액은 올 1분기 23조4349억원이다. 8.03% 증가했다. 잔액으로 살펴보면 1조7422억원 늘었다. 카드사 8곳 중 상승폭이 가장 크다. 이어 KB국민카드와 신한카드는 각각 9059억원, 5150억원씩 신판잔

액을 늘리는 데 성공했다.

삼성카드는 올해 김이태 사장을 맞이하면서 5년 만에 세대교체를 단행했다. 김 사장은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서기관, 대통령비서실 서기관 등을 역임한 뒤 지난 2016년 삼성전자에 입사했다. 이후 전략그룹장과 대외협력팀장 등을 맡았다. 지난 2024년 삼성벤처투자 대표 시절에는 9조원대 메가펀드에 출자사로 참여하는 등 승부수를 띄우기도 했다.

삼성카드의 신판잔액 확대 배경에는 내수경기 활성화 방안이 있다. 자동차 등 회당 승인잔액이 높은 분야에 혜택을 강화해 신판 잔액을 늘렸다는 입장이다. 이달 네이버페이 신차금융 조회 결과에 따르면 삼성카드의 오토캐시백 비중은 2.4%로 카드사 중 가장 높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내수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자동차 등 업종에서 혜택

을 강화한 결과, 신용판매액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반면 우리·하나카드의 신판잔액은 감소세를 기록했다. 점유율로 살펴보면 지난해 1분기 우리카드가 카드사 8곳 중 7.78%를 차지했지만 올해 7.23%로 0.55%포인트(p) 하락했다. 같은 기간 하나카드의 점유율은 7.38%에서 6.99%로 0.39%p 줄었다.

우리카드는 올해 진성원 대표이사가 지휘봉을 잡았다. 우리카드 최초 외부 출신 대표다. 진 대표는 삼성카드와 현대카드, 롯데카드 등을 거쳤다. 실무로 시작으로 카드업계에만 30년간 몸담은 전문가다. 앞서 현대카드 CLM실장직을 역임할 당시 6%대 시장점유율을 15%까지 끌어올리는 등 성과를 거둔 바 있다.

하나카드는 ‘영업통’을 배치한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힌다. 연초 성영수 대표가 지휘봉을 잡으면서다. 성 대표는

하나은행 재직 시절 경기영업본부장과 외환사업단장 등을 역임했다. 영업 일선에서 경험을 쌓은 인물로 손꼽힌다. 취임 당시 ‘트래블로그’ 영업과 법인카드 영업을 강조했다.

실제로 올해 하나카드는 법인카드 시장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 3월말 카드사 8곳의 법인 회원 수는 124만5000명이다. 전년 말 대비 1000명 감소했다. 그러나 하나카드는 1분기 3000명의 법인 회원을 유치하면서 업계에서 가장 높은 영업실적을 거뒀다. 향후 과제는 개인신용카드 영업으로 풀이된다.

한편 올해 기준 대표가 그대로 지휘봉을 잡은 카드사 중 신판 잔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현대카드다. 전년 동기 대비 9701억원 증가했다. 이어 비씨카드의 신판잔액은 2910억원 상승했으며 롯데카드는 200억원 올랐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대선여파 집값 들쭉 세종시 매매가 꺾중 쭈쭈에 11만명 몰려

조기 대선을 앞두고 세종시 집값이 들쭉이고 있다. 유력 대선 후보들이 대통령실 등의 세종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작년 하락폭이 가장 컸던 세종 집값이 상승세로 전환한 가운데 소위 ‘쭈쭈’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는 11만명 가까이 몰리기도 했다.

28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세종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 21일 기준 한 주간 0.23% 올라 전국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세종 아파트 매매가격은 작년 전국에서 낙폭이 가장 컸지만 지난 14일 기준 주간 변동률이 0.03%로 70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세종 집값을 끌어 올린 것은 대통령실과 국회 등을 세종으로 이전하겠다는 이른바 ‘세종 천도론’이다. 지난 2020년 총선 당시에도 ‘세종 천도론’이 부상하면서 세종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1년간 40% 이상 급등하기도 했다.

박세라 신영증권 연구원은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기에 세종시로 온전히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면서 묵혀뒀던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이슈가 빠르게 재부상했다”며 “현재 국토 불균형의 심화가 정점을 이루면서 빚어지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되면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에 쌓여있던 매물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 가운데 무순위 청약 물량에는 신청자가 대거 몰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세종 산울마을 5단지 세종파밀리에 더파크(행복중심복합도시 6-3M2블록) 4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에 10만8057명이 접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세 차익은 물론 향후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청약플러스 시스템이 마비되기도 했다.

/안상미 기자

현장에서 조립한다… GS건설, ‘레고식 아파트’ 실증 완료

GPC 공장 내 목업 완공·검증 마쳐
작업량 축소, 사고위험 감축 기대

GS건설이 모듈러 주택사업을 통해 축적된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레고식 블록 아파트 시대에 한 발 다가섰다.

GS건설은 자회사 GPC와 함께 충북 음성에 GPC 공장 부지내에서 조립식 콘크리트(PC 공법) 부재로 만든 공동주택 목업(실제와 동일한 시험 건축물)을 완공하고, 주거 성능 검증까지 마쳤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목업은 탈현장 건설 기술을 활용해 기존 철근 콘크리트(RC)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택 시장의 새로운



PC 공동주택 내부 실내투시도 예시.

/GS건설

패러다임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뒀다. PC 공법은 공장에서 만든 콘크리트 기둥, 보, 슬래브 등의 부재를 현장에서 조립하는 형태다. 기존 철근 콘크리트(RC)공법은 현장에서 직접 시공 방식으로 날씨나 작업자의 숙련도에 따라 품질이 달라지는 단점을 보완했다.

이번에 GS건설이 준공한 PC 공동주택 목업은 전용면적 59㎡ 및 84㎡의 4베이 평면을 구현했으며, 30층 이상의 높이에도 적용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세대를 구성하는 모든 골조 부재는 GPC 공장에서 미리 제작해 현장에서 설치하는 PC 공법으로 시공됐고, 기계설비 및

전기공사, 내·외부 마감 공사까지 모두 실증을 마쳤다. 특히, GS건설에서 특허 출원한 PC 접합부의 구조 강화 기술이 적용됐다. 강화된 구조를 통해 품질 향상은 물론 현장 작업량을 줄여 안전사고 위험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GS건설은 이번 목업에서 바닥 충격음, 방수, 단열, 난방, 기밀 등 다양한 항목에 대한 주거 성능 테스트를 진행했고, 현장 콘크리트 타설 방식의 기존 공동주택과 동등 이상의 주거 성능을 확보했다. 또한, PC로 만든 공동주택의 장점 중 하나는 세대 내부 기둥이 없고 100% 건식 벽체를 적용해 고객이 원하는 대로 내부 구조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어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평면 구성도 가능하다는 점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LG전자, ‘QNED’ TV 시대 연다

〈나노 기반 고색 재현 디스플레이〉

내달 한국·북미 시장 신제품 출시
5대 AI 기능 등 첨단기술 대거 적용
“프리미엄 TV 리더십 공고히 할 것”

LG전자가 내달 초 한국과 북미를 시작으로 2025년형 나노 기반 고색 재현 디스플레이(QNED) TV 신제품을 글로벌 시장에 순차 출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43·50·55형 등 중소형부터 65·75·86·100형 등 초대형까지 아우르는 다양한 라인업을 출시했다.

LG전자는 신제품에 새롭게 개선된 나노입자 기반 고색 재현 기술을 적용해 화면 속 영상을 실제 눈으로 보는 것처럼 색 재현율을 높였다. 글로벌 시험·인증기관 인터텍으로부터 원본 영상의 풍부한 색을 왜곡 없이 표현하는지를 측정하는 컬러볼륨 100% 인증을 받았다.

또 2023년 세계 최초로 선보인 ‘무선 AV 전송 솔루션’도 QNED 에보에 확대 적용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최대 4K·144헤르츠(Hz) 영상을 손실·지연 없이 무선으로 전송할 수 있으며, 화면 끊김을 최소화하는 AMD의 ‘프리스링크 프리미엄’ 인증을 획득했다.

기존 TV 본체에 연결했던 콘솔기기, 셋톱박스 등 주변 기기를 별도 ‘제



독일 프랑크푸르트 지역에 있는 가전 매장 ‘미디어 마켓’ 직원이 고객에게 LG QNED TV의 AI 기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LG전자

로 커넥트 박스’에 연결하면 무선 환경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 매직 리모컨에는 5대 공감지능(AI)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전용 버튼을 탑재했다. 5대 AI 기능은 ▲사용 패턴을 기반으로 고객 맞춤형 키워드를 제안하는 AI 컨시어지 ▲거대언어모델(LLM)로 기반 고객의 발화를 이해하고 의도를 추론해 검색하는 AI 서치 ▲간단한 문제해결을 돕는 AI 챗봇 ▲AI 맞춤 화면·사운드 모드 ▲목소리로 사용자를 구분해 자동으로 계정을 전환하는 보이스 ID 등이다.

아울러 2025년형 LG QNED 에보에는 독자 AI 화질·음질 엔진인 알파8프

로세서를 탑재했다. 기존 대비 약 70% 뛰어난 AI 성능을 토대로 초대형 TV에 맞는 화질·음질을 구현한다.

100형 QNED 에보 국내 출하가는 890만원, 무선 QNED 에보 출하가는 86형 제품이 639만원, 75형 제품이 499만원이다.

박형세 LG전자 MS사업본부장 사장은 “압도적 자발광 화질의 올레드 TV와 진일보한 기술을 대거 적용한 프리미엄 LCD TV인 QNED TV의 듀얼 트랙 전략으로 글로벌 프리미엄 TV 시장에서 리더십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민 기자 hyem@metroseoul.co.kr

정의선 “올해의 車, 임직원 열정·헌신 덕분”

〈현대차그룹 회장〉

정 회장, 격려 메시지 전달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사진)이 기아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V3의 ‘세계 올해의 차’ 수상을 축하하며 임직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보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정의선 회장은 지난 25일 사내 업무방에 올린 글에서 기아의 ‘세계 올해의 차’ 2년 연속 수상과 현대차 캐스퍼 일렉트릭의 ‘세계 올해의 전기차’ 선정을 축하했다. 임직원의 열정과 헌신을 격려하며 지금의 위대함을 넘어서자고 강조했다. EV3는 이달 초 뉴욕 국제 오토쇼에서 열린 ‘2025 월드카 어워즈’에서 최고상인 ‘세계 올해의 차’에 선정됐다. 이 수상으로 기아는 지난해 EV9에 이어 2년 연속 WCOTY를 받았다.

정 회장은 “현대차그룹은 지난 6년간 5차례에 걸쳐 ‘세계 올해의 차’에 이름을 올렸고, 전기차로 4년 연속 수상이라는 전례 없는 성과를 거뒀다”며 “이러한 값진 결실은 상품 기획부터 개발, 디자인, 구매, 생산, 품질, 영업 등 완성차 전 부문과 철강, 물류, 금융 등 전 그룹사가 상호 긴밀히 협업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객의 기대를



뛰어넘는 가치를 제공하고자 한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 덕분”이라고 덧붙였다.

정 회장은 “기아는 지난해 EV9에 이어 올해 EV3까지 2년 연속 세계 올해의 차를 수상했고, 이는 단순한 영예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며 “1944년 자전거 부품으로 시작한 이래 삼륜차를 거쳐 세계 최고의 자동차 반열에 오르기까지 쉽지 않은 혁신 역사를 써온 기아의 DNA가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던 점에서 의의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아 고유의 ‘도전과 분발’ 헤리티지를 현대적인 혁신으로 계승하고, 세계 시장에서 압도적 경쟁력을 확보했음을 입증한 쾌거”라고 덧붙였다.

정 회장은 “우리는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으로 글로벌 자동차 산업을 선도해가고 있다”면서도 “지금 이 순간이 우리가 추구하는 정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레이트 벳 그레이트’(Great but Greater), 지금의 위대함을 넘어 더 벽찬 미래를 함께 만들자. 저는 우리의 혁신과 여정에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조선업계, LNG선 등 대규모 수주 행진

HD현대 지난주에만 2.5조 계약
삼성중 연간 수주목표 27% 달성

HD현대와 삼성중공업이 잇따라 대규모 선박 수주에 성공하며 조선업계에 훈풍을 불어넣고 있다. 양사는 컨테이너선 등 다양한 선종을 중심으로 수주 실적을 확대하며 시장 점유율 확보와 수익성 강화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HD현대의 조선 중간 지주사인 HD한국조선해양은 지난주에만 총 2조 5354억 원의 규모의 컨테이너선 22척을 수주했다.

이번에 수주한 컨테이너선은 울산 HD현대미포에서 16척(2800TEU급 컨테이너선 10척·1800TEU급 컨테이

너선 6척), 전남 영암의 HD현대삼호에서 6척(1만 6000TEU급 컨테이너선 2척·8400TEU급 컨테이너선 4척)을 각각 건조해 2028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선주사에 인도할 예정이다.

HD현대삼호에서 건조하는 8400TEU급 컨테이너선에는 LNG와 디젤을 모두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LNG 이중연료 엔진(DF)이 탑재되며 1만 6000TEU급 컨테이너선에도 배기가스 저감장치인 스크러버가 탑재돼 강화된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에 대응할 계획이다. HD현대미포는 올해 전 세계에서 발주된 총 33척(클락슨리서치 기준)의 ‘피터 컨테이너선’ (3,000TEU 미만급) 중 절반에

가까운 16척을 수주, 시장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다.

삼성중공업도 이날 아시아 지역 선주로부터 5619억원 규모 컨테이너운반선 2척을 수주받아 계약했다고 공시했다. 삼성중공업은 올들어 LNG운반선 1척, 셔틀탱커 9척, 에탄 운반선 2척, 유조선 4척, 컨테이너운반선 2척 등 18척, 26억 달러를 수주함으로써 연간 목표 98억 달러의 27%를 달성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연간 2기 정도 FLNG(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생산·저장·하역설비) 계약을 확보해 선박과 해양플랜트의 효율적 균형을 맞춰나갈 계획”이라며 “수익성 위주의 선별 수주 전략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현정 기자 hyeon@

한화오션, 크레인 등 생산설비 6000억 투자

부유식 도크, 해상 크레인 도입

한화오션은 생산력 향상을 위해 부유식 도크와 6500톤급 초대형 해상 크레인을 새롭게 도입해 생산량과 건조 효율성을 증대할 예정이다.

한화오션은 세계 최고 수준 부유식 도크와 6500톤급 초대형 해상 크레인을 신규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투자 규모는 약 6000억원 규모로, 생산량과 건조 효율성 증대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가 목표다.

한화오션은 2027년 3월말까지 부유식 도크(Floating Dock) 1기를 새롭게 선보인다.

신규 부유식 도크는 길이 480m, 폭 97m, 부양 능력 18만톤의 초대형 도크다. 해당 시설이 본격 가동되면 기존 도크와의 역할 분리를 통한 생산 최적화로 선박 생산량 증대가 기대된다. 한화오션은 현재 육상 도크(Dry Dock) 2기, 부유식 도크 3기 등 총 5기의 도크를 운영 중이다.

6500톤급 초대형 해상 크레인도

2027년 11월 말까지 추가될 예정이다.

이 해상 크레인은 대형 블록을 직접 인양 및 탑재할 수 있다. 기존 3600톤급 해상 크레인 2기를 병렬로 운영해야 했던 복잡한 공정을 단순화할 수 있다. 회사는 건조 효율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화오션은 이번 설비 투자가 외부 임차 설비 의존도를 줄이고, 선박 생산량 및 건조 효율성 증대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생산 능력 확대에 맞춰 신규 고용 창출 및 관련 인프라 투자도 예정돼 있어 거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부유식 도크와 초대형 해상 크레인 추가 도입을 위한 투자는 단순한 생산설비 확장을 넘어 미래 해양 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의 일환”이라며 “한화오션은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Global Ocean Solution Provider’라는 비전을 실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삼성SDI, ‘인터배터리 유럽’ 출격

ESS용 배터리 등 전시 예정

삼성SDI가 유럽 최대 에너지 산업 관련 전시에서 에너지저장장치(ESS)용 배터리를 선보이며 글로벌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한다.

삼성SDI는 오는 5월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독일 뮌헨의 ‘메세 뮌헨’에서 개최되는 ‘인터배터리 유럽 2025’에 참가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전시에서 삼성SDI는 ‘언제나 연결된 배터리 기술로 업그레이드되는 우리의 일상’이라는 뜻을 담은 ‘인텔리전트 라이프, 올웨이즈 온’이라는 슬로건 아래 다양한 차세대 배터리 제품과



삼성SDI 인터배터리유럽 2025 부스 조감도. /삼성SDI

혁신 기술을 선보인다.

특히 AI 시대를 겨냥한 ESS용 배터리 기술을 중심으로 차별화된 안전성과 편의성이 입증된 제품들을 중점적으로 전시할 예정이다.

삼성SDI는 먼저 UPS(무정전 전원장치)용 배터리 신제품 ‘U8A1’을 전격 공개한다. ‘U8A1’은 초고출력 특성과 높은 에너지밀도를 겸비해 좁은 공간에서 최적의 효율을 낼 수 있다.

또 삼성SDI의 전력용 ESS 솔루션인 ‘SBB 1.5’도 전시된다. SBB는 20피트 크기의 컨테이너박스에 배터리 셀과 모듈, 랙 등을 설치한 제품이다. 특히 합침식 소화 기술인 EDI가 적용돼 고도화된 안전성을 자랑한다.

삼성SDI 관계자는 “이번 전시에서 고객들의 다양한 사용 환경에 최적화된 ESS용 배터리 포트폴리오를 선보일 것”이라며 “삼성SDI의 ESS용 배터리로 언제나 연결된 우리의 일상을 엿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삼성전자 모델이 터치 인터랙션 기능이 탑재된 프리미엄 가정용 프로젝터 ‘더 프리미어5’를 체험하고 있다. /삼성전자

볼을 터치스크린처럼 활용할 수 있다.

/이혜민 기자

중소·중견기업 2題

스마트공장 도입률 19.5% ‘제조AI’ 도입社 0.1% 불과

중기부, 제1회 스마트제조혁신 실태조사
스마트공장 도입기업 75% ‘기초단계’
도입 평균 비용 11.3억, 中企는 7.5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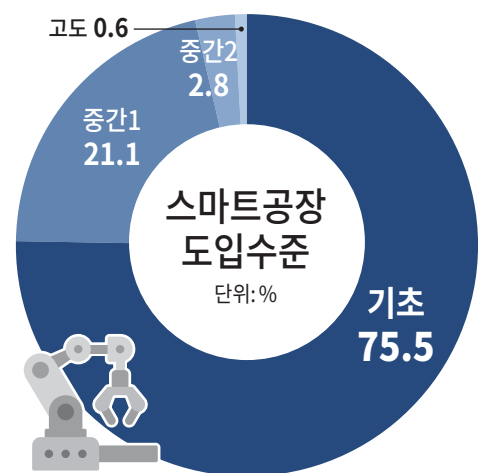
중소·중견기업 중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기업은 10곳 중 2곳에 그쳤다. 제조업 혁신을 위한 AI, 즉 ‘제조AI’ 도입 기업은 전체의 0.1%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이 28일 내놓은 ‘제1차 스마트제조혁신 실태조사’ 결과에서 나왔다.

조사에 따르면 공장 보유 중소·중견 제조기업 16만3273개사 중 스마트공장 도입률은 전체 기업에서 19.5%, 중소기업은 18.6%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별로 ▲중견기업 85.7% ▲중기업 54.2% ▲소기업 28.5% ▲소상공인 8.7%로, 규모가 클수록 도입률이 높았다.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 중 기초 수준인 곳은 75.5%에 달했다. 스마트공장 도입 범위는 ‘부분 도입’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99.8%였다.

스마트공장 도입 평균 비용은 11억3000만원으로 이 가운데 중소기업은 7억5000만원이었다. 도입 시 가장 많은 자금 조달 방식으로는 ‘자체 자금’(56.9%)으로, 그 비용은 평균 8억1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주요 도입 기술은 전사적 자원관리(ERP·76.3%), 제어컨트롤러(16.9%), 제조 실행 시



스템(MES·14.4%)이며, 향후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기술은 제조로봇(1.7%), 제어컨트롤러(1.3%), ERP(1.1%) 순이다.

제조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 기업은 전체의 60.8%로, 이중 52.1%가 실제 분석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기업의 92.4%가 제조데이터를 수집하고, 이 가운데 74%가 분석을 실행했다.

반면 제조AI를 도입한 기업은 전체의 0.1%에 불과했다. 도입 계획이 있는 기업은 전체의 1.6%로, 스마트공장 도입기업의 경우 5.2%가 제조AI를 도입했거나 할 계획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중견기업 10곳 중 1곳만 자금사정 작년보다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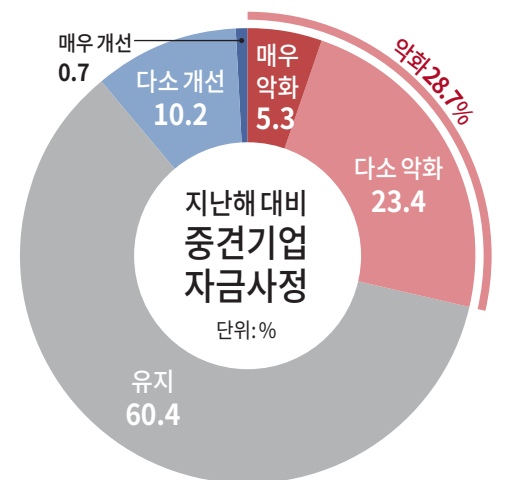
중견련, 기업 748곳 금융애로 조사
60% 작년과 비슷, 29% 악화됐다
기업 악화요인 53% “매출 부진 탓”

중견기업 10곳 중 9곳은 올해 자금 사정이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 부진’이 주된 원인으로 현 상태가 지속될 경우 올해 중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했다. 이같은 내용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중견기업 748개사를 대상으로 ‘2025년 중견기업 금융 애로 조사’를 실시해 28일 내놓은 결과에서 나왔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와 비교한 올해 자금 사정은 ‘개선됐다’가 10.9%, ‘비슷하다’가 60.4%, ‘악화됐다’가 28.7%였다. 자금 사정 악화 요인으로는 53%가 ‘매출 부진’을 꼽았고 ▲이자비용 증가(14%) ▲인건비 증가(10.2%) ▲수주조건 악화(6.5%) 등을 지목했다.

자금 사정이 나빠진 기업들은 유동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올해 하반기’(33%)나 ‘올해 상반기’(19.5%)에 자칫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으로 가장 많이 우려했다. 자금 사정이 악화된 상황에서도 중견기업의 16.7%는 ▲인건비 상승(43.2%) ▲원·부자재 가격 상승(34.4%) ▲설비투자 확대(29.6%) 등 요인으로 자금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견련 관계자는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 등



글로벌 환경 악화와 내수 침체속에서 매출 감소를 자금 사정 악화의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한 기업이 지난해 4월 32%에서 올해 4월 53%로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중견기업의 자금 조달 경로는 ▲시중은행(53.6%) ▲정책금융(11.6%) ▲직접금융(9.8%) 등 순으로 집계돼 중견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의 불균형 배분이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효과적으로 중견기업의 활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정책금융의 문턱을 낮추고 시중은행의 경직적인 운영 기준을 완화하는 등 중견기업이 겪는 고질적인 자금 조달 애로를 시급히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중진공, 中企벤처 중남미 진출 추가지원 나섰다

강석진 이사장, 멕시코서 간담회
현지 정부·경제단체와 협력 확대

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멕시코에서 우리 중소벤처기업들의 중남미 진출 확대 추가 지원에 나섰다.

중진공은 강 이사장이 지난 25일(현지 시간) 오후 멕시코시티에서 멕시코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과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에 따른 현장 대응력 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지 정부 및 경제단체와 협력 확대에 나섰다고 28일 밝혔다.

간담회는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미국의 무역장벽 강화로 인해 멕시코 내 생

산기지 이전 또는 사업 확대를 추진 중인 우리 중소기업들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강 이사장은 멕시코 현지 진출 기업들과 소통하며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우리 기업의 대응, 원산지 증명 요건, 물류비 상승, 복잡한 인증절차 등 현장의 현안들을 살펴보고 기업들이 직면한 어려움에 대해 경청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 A대표는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응해 멕시코 현지 생산을 확대하고 있지만 원산지 요건 충족을 위한 현지 부품 조달물 확대가 필수적”이라며 “이

로 인해 신규 공급망 구축 비용과 원자재 수입 시 환율 변동성, 물가 상승까지 더해 제조원가 부담이 크다”고 호소했다.

중진공은 수출애로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관세 리스크 대응을 위한 특화 지원책도 강구했다. 수출 바로(BARrier zeRO) 프로그램을 통해 대체 시장 발굴, 대체 공급망 확보, 관세 분쟁 해결 등의 바우처 서비스를 신규 도입했다.

같은 날 강 이사장은 멕시코 경제부 페르난도 생산개발총국장을 만나 멕시코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현장 애로를 전달했다.

이외에도 중진공은 멕시코의 최대

민간 경제단체인 대외무역투자기술위원회(COMCE)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양국 간 협력 확대 및 각국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비즈니스 상담회, 정보교류 행사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강 이사장은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멕시코는 우리 중소기업들의 북미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적 거점이 될 것”이라며 “한국의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북미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관세 대응, 원산지 인증, 물류애로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맞춤형 정책과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LS마린솔루션의 해저케이블 매설선 미래호, /LS전선

LS마린솔루션

대만서 1580만 달러 해저케이블 매설계약

LS마린솔루션이 해외 전력망 시장에 첫발을 내디뎠다. 국내 해저케이블 시공업체로서 처음으로 해외에서 수주에 성공하며 글로벌 시장 진출의 전환점을 마련했다.

LS마린솔루션은 대만 해상풍력단지에서 1580만달러(약 227억원) 규모의 해저케이블 매설 계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대만 전력청(TPC)이 294.5MW(메가와트) 규모로 추진하는 ‘TPC 해상풍력 2단지’ 사업으로, 대만 정부가 2020~2025년까지 총 5.6GW(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목표로 추진 중인 1단계 계획의 핵심 사업이다.

대만 정부는 2035년까지 총 20.6GW의 해상풍력 발전 용량 확보를 목표로 장기 로드맵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수주를 통해 LS마린솔루션은 향후 2, 3단계에서 약 2조 5000억원 규모로 예상되는 해저 시공 시장 선점의 기반을 마련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대한전선, 북미 해상풍력 시장 공략

美 버지니아주 ‘IPF 2025’ 참가

대한전선이 북미에서 인정받은 경쟁력을 기반으로 현지 해상풍력 시장 공략에 나선다. 대한전선은 오는 5월 1일까지 미국 버지니아주 버지니아비치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IPF 2025’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IPF’는 미국 풍력 에너지 협회인 오션 네트워크가 주관하는 북미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 및 해양 재생에너지 전문 컨퍼런스로, 미국 연방 및 주정부 관계자를

비롯해 유럽 주요 국가(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등)와 글로벌 해상풍력 개발사, 기자재 공급사 등이 참가한다. 행사에서는 해상풍력 관련 최신 기술과 시장 동향, 연구 성과 등이 공유된다.

대한전선은 ‘해저에서 연결하는 새로운 미래’라는 주제로, 해저케이블 터키 경쟁력을 강조한다. 올해 상반기 종합 준공을 앞둔 당진해저케이블 1공장과 최근 당진 고대부도로 부지를 확장한 해저케이블 2공장에 대해 소개하며 생산 역량을 알린다.

/차현정 기자

한화시스템, 1분기 영업이익 582억 28% ↑

대규모 방산 수출 등 성과

한화시스템이 방산 대규모 수출 및 양산사업으로 견조한 실적을 달성했다.

한화시스템은 올해 1분기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약 6901억원, 영업이익 582억원, 당기순이익 410억원을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26.8%, 영업이익은 27.9%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93억원으로 18.5% 감소했다.

회사는 올해 방산 부문에서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체계(L-SAM-II) 다기능레이다(MFR) ▲장사정포 요격체계(LAMD) 다기능레이다(MFR) ▲한국형 전투기(KF-21) 핵심 장비인 AESA레이다 초도 양산 등 체계개발 및 양산 사업을 통한 견조한 실적 흐름을 기대하고 있다. ICT 부문 또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총복 보은 MCS(모듈화장약) 공장 지능화 물류 시스템 구축 등 스마트 제조 분야의 사업이 예정돼 있다.

/차현정 기자



AI·Cloud·연계 플랫폼 초월 기업

AI LLaMON Platforms

상용/SaaS 하이브리드형

연계통합 미들웨어·디지털 트윈 플랫폼 시장점유율 1등 기업



현실과 디지털 세계를 연결하는

METABUILD



SKT, 해킹 후폭풍… 유심교체 오픈런·집단소송 움직임

오전 7시30분부터 대리점 줄서기도
유심교체 온라인 예약·PASS 앱 먹통

집단소송카페 가입자 1.8만명 달해
공동대응 공식 홈페이지도 개설
유심 해킹사건 국민동의 청원 진행

SK텔레콤의 중앙 서버 해킹에 따른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건의 후폭풍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가입자들은 유심 교체를 위해 오픈런을 불사하고, 집단 소송을 위한 대응 카페도 만들어 모였다. SK텔레콤이 내놓은 유심보호서비스 가입만으로는 불안감을 느낀 이들이 추가적인 조치를 위해 PASS 앱으로 물리면서, PASS 또한 먹통이 됐다.

28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SK텔레콤 직영 대리점인 T월드에서 이날 오전 8시 이전부터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는 오픈런이 있었다. 모두 SK텔레콤 고객으로 유심 교체를 위함이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 줄은 옆상가까지 이어졌다.

서울시 중구 명동 T월드에서 일찌감치 줄을 선 김수영(45)씨는 “마음이 급해 일단 연차를 내고 왔다”면서 “이렇게 심각한 사건을 덮으려 했더니 믿어지지 않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날 가장



28일 서울 시내 한 SKT 대리점을 찾은 시민들이 유심 교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먼저 도착한 사람은 7시 30분 경 도착한 김모씨였다.

박모(24)씨는 노인들을 염려했다. 박씨는 “나는 대학생이고 인터넷으로 정보를 빨리 알았지만, 노인들은 어렵하나 싫다”면서 “SK텔레콤이 직접 전화하고 문자하며 알려야 하는 게 아닌가 싫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전날 ‘사이버 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28일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 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유심 교체를 무료로 진행한다’며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28일부터 개시한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이날 SK텔레콤의 유심 교체 온라인 예약 시스템은 예약을 위해 사람들이 물리면서 최대 10만 명대까지 대기자가 늘어나는 등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했다.

접속에 성공해도 다음 화면으로 넘어갈 수 없는 경우가 부지기수였고, 예약을 완료하더라도 날짜 등을 선택할 수 없어 편의성이 떨어졌다.

PASS 앱도 25일부터 먹통이 됐다. PASS 앱을 이용하면 명의도용방지과 피싱 사이렌 등 보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이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물리면서다. PASS 앱은 28일 현재 “KAI

T(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제공하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이용량 급증으로 인해 서비스 제공이 일시 중단되거나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며 “현재 안정화 작업을 진행 중이며 신속히 정상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가입자들은 집단소송 등 공동대응을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SK텔레콤 가입자에 의해 27일 네이버에 ‘SK텔레콤 개인정보유출 집단소송카페’가 개설됐는데, 28일 오후 2시 현재 가입자 수는 1만8353명에 이르고 있다.

카페 운영진은 “본 카페는 집단소송 준비를 위한 피해자 모임을 구성 중”이

라며 “사건의 성격상 피해자 확인 및 자료 수집 후 법률 대응이 병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집단 소송에 참여할 법무법인 등의 문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집단소송 카페 외에도 ‘SKT 유심 해킹 공동대응 공식 홈페이지’가 개설됐다. 해당 홈페이지 운영진은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건에 대해 국민동의 청원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SK텔레콤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11시경 악성코드로 인한 고객 유심 관련 정보 유출 정황이 내부 감사를 통해 발견됐다. SK텔레콤은 해당 사실을 확인한 즉시 악성코드를 삭제하고 해킹이 의심되는 장비를 즉각 격리 조치했다. 이후 20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침해사고 사실을 신고했으며, 22일 오전 10시에는 개인정보보호 위원회에도 관련 사실을 신고하고 조사에 협조 중이다.

유영상 SK텔레콤 CEO는 지난 25일 서울 을지로 사옥에서 해킹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모든 SK텔레콤 고객분들께 유심보호서비스를 널리 알리기 위해 안내 문자를 발송했고, 디지털 취약 계층 고객에게는 상담사가 직접 전화로 가입을 돕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LG CNS, 클라우드·AI로 역대최고 실적

(1분기 기준)

1분기 매출액 1.2조, 영업이익 789억
전년 동기비 각각 13.2%·144.3% ↑
클라우드·AI 사업 매출 30.1% 성장

인공지능 전환(AI) 전문 기업 LG CNS가 클라우드와 인공지능(AI)을 등에 업고 1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

LG CNS는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1조2114억원, 영업이익은 789억원으로, 같은 분기 역대 최고 성과를 거뒀다고 28일 밝혔다.

전년 동기에 비해 매출은 13.2% 늘었고, 영업이익은 144.3% 뛰었다. 특히 매출은 2018년부터 8년 연속 성장세를 나타내며, 경쟁사인 삼성SDS를 바짝 쫓는 모양새다.

앞서 삼성SDS는 지난 24일 연결 기준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7.5% 증가한 3조4898억원, 영업이익은 18.9% 늘어난 2685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LG CNS와 비교해 매출액은 약 2.9배, 영업이익은 약 3.4

배 많은 수준이다.

두 회사 간 실적 차이는 LG CNS의 주 사업 영역이 아닌 물류 부문에서 비롯된 것으로 회사 측은 보고 있다. 올 1분기 삼성SDS의 물류 부문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1.6% 증가한 1조8894억원이었다. 전체 매출액에서 물류 부문을 뺀 나머지는 1조6004억원으로 LG CNS와의 차이가 좁혀진다.

LG CNS도 디지털 물류 사업을 추진 중인 하나, 삼성SDS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삼성SDS가 국제화물 운송, 물류센터 운영 및 내륙 운송, 프로젝트 물류, 이커머스 등 물류 네트워크 인프라와 첨단 IT 기술을 결합한 토털 서비스를 선보이는 ‘종합 물류 솔루션’ 기업이라면, LG CNS는 스마트 물류 및 자동화 기술을 통해 미래형 공급망을 지원하는 ‘디지털 혁신 파트너’에 가깝다.

LG CNS의 분야별 성적을 살펴보면, 클라우드·AI 사업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0.1% 성장한 7174억원으로 집

계됐다. 전체 매출 중 클라우드와 인공지능 사업 비중은 약 59%를 차지했다.

NH농협은행, 미래에셋생명, 신한카드 등 금융 기업의 AI 사업을 수주하고, 에스오일을 포함한 여러 제조 기업의 공장을 AI 기반 지능형 공장으로 고도화하는 프로젝트를 맡았으며, 게임사·물류 회사 등 다양한 기업들의 클라우드 전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매출이 증가했다고 LG CNS는 설명했다.

스마트 물류·팩토리·시티 등 스마트 엔지니어링 사업 매출은 2063억원으로 집계됐다. 물류 로봇 도입이 늘고, 국내외 교통 시스템에 스마트 기술 적용이 확대되면서 안정적으로 매출을 낼 수 있었다고 회사 측은 부연했다.

미래 먹거리인 AI 데이터센터 영역에서는 특수 액체로 서버를 냉각하는 액침냉각 기술, 디지털트윈 기술 등을 필두로 인도네시아 내 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또 현재 개발 중인 ‘에이전틱 AI’는 연내 상용화해 비즈니스 레퍼런스를 쌓는다는 목표다. /김현정 기자 hjk1@

KT, 장기고객 초청 프로그램 ‘펫밀리데이’

내달 18일 춘천 ‘강아지 숲’서 진행

KT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장기고객 초청 프로그램 ‘초대드림’의 아홉 번째 행사로 ‘펫밀리데이(Petmily Day)’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초대드림은 2024년 7월부터 시작된 KT의 대표 고객 초청 프로그램으로, 스포츠, 축제, 캠핑, 영화관 등 다양한 문화이벤트에 장기고객을 초청하는 행사다.

‘펫밀리데이’는 5월 18일, 국내 최대 반려견 테마파크인 춘천 ‘강아지 숲’에서 열리며 KT 장기고객 중 반려견 가족이라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참여 고객은 펫 장애물 훈련 체험, 펫 레스토랑 메뉴 제공, AI 기반 펫 가족사진 촬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으며, 반려동물 전문가 설채현 수의사와 함께



KT 모델들이 5월 장기고객 초대드림 ‘펫밀리데이’를 알리고 있다.

/KT

하는 펫 건강 클래스도 참여할 수 있다.

응모는 4월 28일부터 5월 8일까지 KT닷컴 초대드림 이벤트 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응모자 전원에게는 KT의 펫상품 3종(펫케어, 펫보험, 펫상조)에 대한 할인 혜택이 문자로 제공된다. 당첨자는 5월 13일 개별 안내될 예정이다.

/김서현 기자

카카오,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선정

카카오테크 캠퍼스로 IT 인재양성

카카오는 지역 기반 IT 인재양성 프로그램 ‘카카오테크 캠퍼스’가 고용노동부 주관 ‘2025년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ESG 지원형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3기를 맞이한 ‘카카오테크 캠퍼스’는 카카오의 ESG 교육 사업으로, 부산대·전남대·강원대·경북대·충남대 등 5개 지역 거점 대학교와 협약해 실무 중심의 개발자 양성 교육을 제공한다.

올해는 카카오 현직 개발자 멘토링,

1:1 코드 리뷰, 취업 특강 및 커리어 코칭 등을 강화해 참가자 맞춤형 실무 중심 경험을 지원하고 있다.

카카오는 디지털 사회 전환에 적합한 인재를 육성하고, 청년 고용과 지역 인재 소멸 문제 해결에 기여할 계획이다.

카카오 CA협의체 권대열 ESG위원장은 “카카오테크 캠퍼스는 지역 청년들에게 기술인재로의 실질적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카카오의 ESG 실천 사례”라며 “앞으로도 카카오가 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회에 지속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김서현 기자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바우처 서비스 도입

펫 바우처 시작으로 혜택범위 확대

네이버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에 맞춤형 쇼핑 혜택을 제공하는 ‘바우처’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한다.

네이버는 28일 바우처 서비스 베타 운영에 들어간다. 바우처 서비스는 네

이버플러스 멤버십 회원이라면 추가 과금 없이 누구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필요한 쇼핑 혜택을 적시에 선택해 누릴 수 있는 서비스다. ‘펫 바우처’를 시작으로 연내 바우처의 혜택 범위를 결혼, 출산·육아 등 주요 생애주기로 확대할 예정이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회원이라면 ‘멤버십 MY’ 페이지에서 자신의 반려동물의 정보(동물 종·성별·나이 등)를 등록해 펫 카테고리의 쇼핑 구매 시 맞춤형 할인과 적립 등 펫 바우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려인에게 인기 있는 ‘로얄캐닌’, ‘힐스’ 등 총 11개사가 펫 바우처의 파트너 브랜드로 참여하며, 이들 브랜드 상품 구매 시 바우처 혜택이 제공된다. /김서현 기자

車·반도체株 담는 개미… 외국인은 9개월 연속 매도행렬

상반된 투자전략

이달들어 개인 SK·삼성 3.6조 담아
현대차·기아 등 시총 상위종목 매수

외국인, 한국전력·카카오 등 사들여
관세리스크 적은 내수업종 위주 접근

4월 들어 코스피가 3% 가까이 오르는 동안, 개미 투자자(개인 투자자)와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사들인 종목에 차이가 있었을까. 메트로경제가 이달 1일부터 28일까지 코스피가 상승하거나 하락한 날의 개인 순매수(매수가 매도보다 많은 것) 상위 종목을 분석한 결과, 상승장과 하락장을 가리지 않고, 개인 투자자들은 반도체, 자동차 등 성장주를 사들이는 전략을 썼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발 리스크가 잠재해 있지만, 동학 개미들은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등은 믿을 만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반면, 외국인은 전력·통신 등 내수업종에 집중하며 위험 회피에 나섰다.

◆삼성전자, 개미 ‘원픽’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개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를 1조



Chat GPT가 생성한 이미지.

8245억원, SK하이닉스를 1조7318억원 순매수했다. 이 외에도 현대차(5575억원), 기아(2048억원) 등 시가총액 상위종목들을 가장 많이 순매수했다. 대형주의 가격 하락을 저가 매수 기회로 해석한 것으로 풀이되며, 특히 반도체 종목에 집중적으로 투자한 모습이다. 시장 방향성에 대한 불확실성보다는 개별종목에 대한 기대감이 높게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반도체 산업은 간접적으로, 자동차는 직접적으로 미국의 상호 관세 리스

크에 노출돼 있다. 이로 인해 실적 기대치가 하향 조정되면서 주가도 크게 떨어졌다. 이 기간 동안 삼성전자는 3.46%, SK하이닉스 4.56%, 현대차 4.16%, 기아 3.90%씩 하락했다.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1분기 호실적을 기록했다라는 점이 주목된다.

반도체 업종은 증권가에서도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업종의 주가 하락은 설비투자(capex)에 대한 불

확실성이 반영돼 있는 상황”이라며 “관세 정책 등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에 따른 우려는 여전히 존재하나, 금일 구글 실적 발표에서 설비투자 전망치가 유지돼 이러한 시장의 우려는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12개월 선행 주가순자산비율(PBR)도 각각 0.86배, 1.15배로, 이미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반영돼 있는 만큼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몸 사리는 외국인

외국인 투자자들은 선택지는 전혀 달랐다. 외국인들은 한국전력(2118억원), 카카오(1814억원), SK텔레콤(1005억원), 에이비엘바이오(977억원) 등을 가장 많이 담았으며, 국내 증시에서 9개월 연속 순매도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증시에 대한 기대감이 낮은 동시에, 관세 리스크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내수업종 위주의 접근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분간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증시 복귀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상호관세 우려가 높아진 4월 국내 주

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기계·유통·IT하드웨어·반도체·화학 등을 순매도하고, 유틸리티·통신·필수소비재 등 방어적 업종만을 순매수 했다”며 “코로나19 이후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수출 감소뿐 아니라 대중 무역수지 등 중국과의 경합에 대해 경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 관세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일부 숙고하면서 한발 물러섰지만, 위험자산 선호가 바로 개선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국내 금융시장에서도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증시에서 지난해 8월부터 9개월 연속 순매도세를 보이고 있지만, 채권은 지난 3월까지 60조원가량 순매수했다.

허 연구원은 “국내 수출과 기업이익이 바닥을 지날 때까지 외국인 투자자들의 귀환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수출 바닥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 코스피 기업이익 추정치도 그만큼 낮지 않기 때문에 내수 중심의 접근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SKT 해킹’에 유심·경쟁사 통신株 ‘들썩’

유심공급 엑스큐어 2곳 등 상한가
KT 주가 52주 최고가 경신하기도

“불안해서 안 바꿀 수가 있나요. 유심 바꾸려고 점심도 못 먹고 2시간 넘게 기다렸네요.”, “1시간 넘게 기다렸는데 재고 소진이라니 허탈합니다.”

SK텔레콤(SKTEL)에서 발생한 대규모 해킹 사고의 후폭풍이 통신업계와 증시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SKT 고객 신뢰 하락으로 인한 이탈 수요 기대가 커지면서 KT(+1.79%), LG유플러스(+3.75%) 등 경쟁 통신사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한편, 유심(USIM) 관련 부품업체들의 주가도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다.

SKT은 지난 18일 가입자 유심 관리 서버가 해킹 공격을 받아 일부 고객 유심 고유 식별번호 등 개인정보가 탈취된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SKT는 전국 2600여개 T월드 매장에서 전 고객을 대

상으로 유심 무료 교체를 시작했지만, SKT가 다음 달 말까지 추가로 500만개 유심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전체 교체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가입자 수 2300만명에 대비해 유심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유심 제조사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이날 종가 기준으로 SKT의 유심 공급사인 엑스큐어와 유비벨룩스는 나란히 상한가를 기록하며 급등했다. 한솔인티큐브(+29.83%), 코나아이(+6.53%) 등 다른 유심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였다.

통신업계에서는 이번 해킹 사태가 SKT의 신뢰성에 타격을 입힐 것으로 보고 있다. KB라이프 등 일부 보험사들이 SKT 인증을 중단하는 등 부정적 여파가 현실화되기 시작했으며, 고객들은

집단소송 준비와 함께 불매운동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실제로 네이버에 개설된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카페는 개설 이틀 만에 가입자 1만 명을 돌파한 상황이다.

이러한 흐름은 단기적으로 경쟁 통신사인 KT, LG유플러스에 반사이익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나온다. 증권가에서는 가입자 일부가 SKT 이탈을 고려할 경우, 대체 통신사로 이동하는 사례가 증가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SKT 해킹 여파에 반사수혜 기대감이 반영되며 KT는 이날 장 초반 5만 2000원까지 오르며 52주 최고가를 경신했다.

SKT는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통해 해킹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피해 발생 시 100% 보상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고객 불만과 사회적 신뢰 회복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허정윤 기자 zelkova@

호실적에도 목표가 ‘뚝’… 증권가 반응 냉랭

‘관세전쟁’ K-기업에 발목
현대차·SK하이닉스·LG이노텍
깜짝실적에도 목표주가 줄하향

최근 국내 경제에 잿빛 그림자가 드리우자 상장사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는 증권사 리포트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24일부터 이틀간 현대자동차 보고서를 낸 증권사 18곳 중 8개사가 목표가를 내렸다. LG이노텍도 16곳 중 9곳이, SK하이닉스는 19곳 중 4곳이 목표주가를 하향 조정했다. 세 기업 모두 1분기 ‘깜짝 실적’을 발표했지만, 증권사의 전망은 오히려 비관적이다.

현대차의 올해 1분기 매출은 44조 4078억원, 영업이익 3조6336억원으로 1분기 중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하지만, 트럼프 관세정책이 현대차의 발목을 잡고 있다.

남준신 DB금융투자증권 연구원은 “현대차는 2분기에 미국향 한국 공장 수출 감소로 인한 고정비 부담이 반영되

며, 관세 부과 등 차량 판매에 있어 직접적인 부담이 발생할 예정”이라며 “목표주가 하향은 2025~26년 실적 추정치에서 관세 25%에 대한 부담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도 비슷한 상황이다. 올해 고대역폭메모리(HBM) 판매 확대 등으로 1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영업이익은 시장 예상치였던 6조6000억원을 10% 이상 상회했다. 전년 동기보다는 157.8% 급등했다.

하지만 증권가의 반응은 냉랭하다. 관세 리스크가 고조될 경우, 하반기 수요 감소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박상욱 신영증권 연구원은 “상호관세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품목별 관세가 시행된다고 가정할 경우, 주요 전자제품 제조업체들은 하반기 물량을 2분기로 앞당겨 선 주문할 가능성 높다”며 “이에 따라 2분기 실적은 연간 기준으로 고점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후 3분기와 4분기에는 수요 조정에 따른 실적 하락이 나타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신하은 기자

메리츠증권, 여의도·강남에 PIB센터 출범

고객자산가·리테일 법인시장 공략

메리츠증권은 고객자산가와 리테일 법인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PIB(프라이빗뱅킹+기업금융)센터 2곳을 출범한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여의도 IFC 본사에 위치한 PIB센터는 리테일 법인 고객을 중점 공략할 수 있는 전문인력으로 구성했다. 업계 베테랑으로 꼽히는 세 명의 공동 센터장이 본사 PIB센터를 이끌게 된다.

가장 먼저 영입된 이진주 센터장은 삼성증권 기업금융 지점장 출신으로,

금융상품과 함께 기업금융(IB) 연계딜을 활용해 법인 영업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인 인물이다. 메리츠증권에 합류한 이후 PIB센터의 영업 체계를 잡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두 번째로 영입된 황화연 센터장은 글로벌 자산관리(WM) 강자인 크레디트스위스증권에서 WM부문을 역임했다. 외국계 증권사의 경험과 법인부터 고객자산가 대상 영업까지 감정을 두루 갖췄다.

마지막으로 영입된 최병준 센터장은 골드만삭스증권 글로벌마켓 부문장, 벤



메리츠증권 사옥 전경.

처캐피탈 회사인 더웰스인베스트먼트 투자본부장을 거쳐 메리츠에 합류했다. 기관, 벤처캐피탈(VC)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투자 솔루션 차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하은 기자

머니마켓액티브 ETF 순자산 6조 돌파

삼성자산운용, 상장 9개월 성과

삼성자산운용은 KODEX 머니마켓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가 상장 후 약 9개월여 만에 순자산 6조원을 넘어섰다고 28일 밝혔다.

올해에만 약 2조원의 자금이 유입됐으며, 개인 투자자들도 1907억원 규모의 순매수를 기록하는 등 빠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 같은 성장 배경에는 국내외 정치·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국내 금리 인하 기조에 따라 투자자들의 단기 자금 운용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KODEX 머니마켓액티브는 초단기 채권과 기업어음(CP) 등 신용도가 높은 유동성 자산에 투자하는 머니마켓펀드(MMF) 운용 방식을 기반으로 설계됐다.

/원관희 기자 wkh@

원광대+원광보건대 통합 승인 일반·전문학사 동시운영 ‘최초’

내년 3월 1일 ‘통합 원광대’ 출범
입학정원 생명산업에 60% 집중
생명융합대학원 중심 학사체계로

일반대학 원광대와 전문대학 원광보건대가 내년(2026년) 3월 1일 하나의 대학 ‘원광대’로 통합 출범한다. 일반 학사와 전문학사가 동시 운영되는 최초의 대학이다. 내년 전체 입학정원 중 60%를 생명산업 분야에 집중해 생명융합대학 중심 학사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23일 학교법인 원광학원이 신청한 원광대와 원광보건대의 통·폐합을 승인했다고 28일 밝혔다.

학교법인 원광학원은 지난해 10월 8일 통·폐합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교육부는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라 심의기구인 ‘대학설립개편심사위원회’에서 ▲교사·교원·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학생·교직원 보호 대책 ▲특성화 추진계획 등 통·폐합 요건의 충족여부를 최종 확인하고 통·폐합 승인을 의결했다.

이번 승인으로 원광대와 원광보건대는 내년 봄학기인 3월 1일부터 원광대로 통합 출범한다. 입학 정원은 기존 원광대 3047명, 원광보건대 1311명 등 총 4358명에서 408명 줄어든 3950명이다. 학령인구 감소 등 환경 변화에 맞춘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진행한 결과다.

원광대와 원광보건대는 생명산업 글로벌 거점대학을 목표로 지난해 글로벌 컬대학에 지정돼 핵심 혁신 전략으로



원광대 전경

/원광대 홈페이지

대학 통합을 추진했다.

대학 역사를 특성화 분야로 결집해 캠퍼스에 대학과 산업체, 병원, 연구기관을 연계한 협력지구(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생명산업 거점(허브)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일반학사와 전문학사 동시 운영으로 통합 이후에도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한 전문 학사과정을 유지해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이번 통합을 계기로 의생명·농생명·생명서비스 등 3개 생명융합대학 중심으로 학사체계를 재구조화했으며, 전체 입학정원 중 생명산업 분야에 60%가 집중된다. 아울러, 생명산업 사업화 연계 기술개발(R&BD) 전문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실증연구 중심 생명(바이오)융합대학원을 신설해 올해부터 디지털 건강관리(헬스케어), 첨단생명(바이오)소재학과 등 석·박사 과정 운영을 시작했다

특히, 지금까지는 4년제 일반대와 전문대가 통합해 일반대학으로 전환될 경우 전문학사 과정을 운영할 수 없었

지만, 지난 21일 전북특별자치도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으로 신규 지정되면서 통합대학(일반대+전문대)의 전문학사 학위 수여 규제특례를 적용함에 따라, 최초로 한 대학에서 일반학사와 전문학사를 동시에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은 지방대학이 지역 특성에 따라 과감한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시적(4+2년)으로 규제를 완화 또는 배제하는 제도다.

이번 통합은 일반대학과 전문대학간 새로운 통합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원광대는 의과·치과·한 의과 대학 등 의료 이론 및 연구분야에서 강점을 갖고 있으며, 원광보건대는 물리치료·방사선·치위생 등 실무중심의 보건의료 교육에 특화돼 있었는데, 통합으로 이론과 실무를 아우르는 융합교육이 가능해져 학생들은 폭넓은 학문적 경험을 쌓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서울 필동에 이순신 기념관 설립

남산골한옥마을 소나무숲 부지 에 전시·체험, 교육·연구공간 등 조성

오는 2028년 서울 중구 필동 한국인이 존경하는 인물 1위 ‘이순신 장군’을 기리는 기념관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중구 필동 2가 남산골한옥마을 소나무숲 부지 연면적 7600㎡ 공간에 지하 1층, 지상2층 규모로 오는 2028년 개관을 목표로 이순신 기념관을 설립한다고 28일 밝혔다. 기념관은 전시 및 체험공간, 교육, 연구공간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시는 이순신 장군의 생애에 있어 ‘서울’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장군의 업적과 정신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해 ‘이순신 기념관’ 건립을 추진한다. 4월 28일은 충무공 이순신의 480주년 탄신일이다.

이순신 장군은 서울 중구 인현동 일대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냈다. 훈련원(현 동대문)에서 중앙 관직을 수행했고, 종각 일대는 백의종군 출발지로, ‘서울’은 이순신 장군의 인간적 성숙과 국가적 리더십을 형성해준 ‘토대’가 됐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2028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현재 ‘이순신 기념관’ 건립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를 준비 중이며, 올해 하반기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이순신 기념관 건립을 앞두고 지난 25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기념관 건립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학계·시민사회 공감대 형성을 위해 ‘이순신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학계 전문가, 시민 등 약 5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미국 브리검 영 대학교 마크 피터슨 명예교수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일본 방위대 이노우에 야스시 교수, 중국 난카이대 손위국 교수, 이상배 서울역사편찬원장 등의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이날 김영진 국민대 교수는 “이순신에 대한 연구를 국제적 요소들과 적극적으로 결부시켜야 한다”며 이순신 기념관이 갖춰야 할 국제적 소통 기능도 강조했다.

학술대회에 참석한 오세훈 시장은 “서울은 이순신 장군이 태어나 자라고 공직 생활, 백의종군 결단까지 ‘이순신의 삶과 정신’이 녹아있는 의미 있는 장소”라며 “이순신 기념관 조성으로 오늘 날까지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필요한 가치와 가르침을 주시는 이순신 장군의 지혜, 정신을 세계와 함께 나누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검단연장선 노선도.

/인천광역시

서울시교육청, 설계공모 심사위원 공모

교수, 건축사, 공무원 분야
세 자릿수 대규모 인원 선발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관내 사립학교 건축 설계의 발전은 물론,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설계공모 심사위원 인력풀을 새롭게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건축의 발전 및 교육공간 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설

계안을 선정하고자 건축설계공모 심사위원 인력풀을 운영하고 있다. 기존 운영 중인 인력풀은 오는 5월 임기가 만료된다.

이번 설계공모 심사위원 인력풀 모집은 교육시설 신·증·개축 사업 설계공모 심사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개모집으로 추진된다.

특히 이번에는 세 자릿수 인원으로 대규모 모집에 나설 계획이다. 모집분

야는 교수, 건축사, 공무원 등이다.

인력풀에 최종 선정되면 오는 6월부터 2027년 5월까지 2년간 활동하게 된다. 서울시교육청 산하기관, 서울시교육청 예산이 투입된 사립학교의 설계공모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공개모집 서류 접수는 28일부터 5월 9일까지 12일간 진행된다.

지원 희망자는 서울시교육청 누리집 및 서울시교육청 설계공모 누리집 등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고 전자우편(이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현진 기자

인천, 검단연장선 개통 속도 낸다

市, 기본계획 변경 신청 완료
물가상승 반영 사업비 등 조정

검단신도시와 계양역을 잇는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선 사업이 속도를 높인다. 인천시는 기본계획 변경을 완료한 뒤 종합시험운행과 안전체계 변경 승인을 거쳐 조속한 개통을 추진할 방침이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인천도시철도1호선 계양역과 검단신도시를 연결하는 검단연장선 건설사업과 관련해 관계기관 협의를 마치고 국토교통부에 기본계획 변경을 신청했다.

이번 기본계획 변경은 사업 물량 변동과 최근 물가 상승을 반영해 총사업비를 기존 7277억원에서 7900억원으로 조정했다. 또, 인천도시철도2호선과 최단거리 환승이 가능하도록 103정거장(검단호수공원역) 위치를 조정하고, 종점부 선형을 직선화해 철도 근로자의 시야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전체 노선 연장은 6.900km에서 6.825km로 소폭 변경됐다.

검단연장선은 2019년 12월 착공해

지난 3월 시설물 검증 시험을 완료했으며, 현재는 영업 시운전 단계에 들어섰다. 인천시는 기본계획 변경이 승인되면 철도종합시험운행 결과를 제출하고, 철도 안전체계 변경 승인 절차를 진행한 뒤 본격적인 개통 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개통이 완료되면 신검단중앙역, 아라역, 검단호수공원역 등 3개 정거장이 추가 운영된다. 검단신도시와 계양, 부평, 주안, 송도국제도시 등 인천 전역을 연결하는 대중교통망이 구축돼 시민들의 이동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특히, 검단신도시에서 계양역까지 이동시간이 약 20분에서 약 8분으로 줄어들어 서울 접근성 역시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인수 교통국장은 “도시철도건설본부와 긴밀히 협력해 검단연장선이 차질 없이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개통 시기에 맞춰 교통체계를 면밀히 점검하고 노선 및 환승 체계도 체계적으로 정비해 시민들에게 더욱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김학철 기자 press412@

인하대,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 선정

교육부·과기부 시행 사업
20억 정부 지원금 확보

인하대학교(총장 조명우)는 최근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시행하는 ‘2025년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사업’에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인하대는 지난 2023년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사업에 선정된 이후 2년 동안 10개의 우수한 실험실 창업기업을 배출하는 등 기술혁신 기반 창업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 왔다. 올해 사업

에 연속 선정되면서 약 20억원의 정부 지원금을 확보했다.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연구재단이 주관하는 사업이다.

대학 연구실의 우수 기술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창업 기업을 발굴·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인하대는 대학이 보유한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하고 기술 기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30개팀의 혁신 창업실험실을 발굴 했다. 사전 기

획 프로그램을 통해 우수한 혁신실험실 10개팀을 선발해 연구개발비, 투자역량 강화 교육 등을 지원하며 창업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창업기업의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인하대는 실험실 중심의 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창업 인프라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이현진 기자



칠레 최정상 아이콘 와인

몬테스

광주광역시 “어린이날 황금연휴 맞아 다채로운 행사 가득”

광주시청서 체험 프로그램 진행
시립도서관, 한달간 독서프로그램
민속박물관, 한마당 행사 운영

광주지역에서 어린이날 황금연휴 기간 볼거리·즐길거리가 풍성하게 펼쳐진다.

광주시는 제103회 어린이날을 맞아 3일부터 6일까지 다양한 행사를 선보인다고 28일 밝혔다.

3일에는 광주시청 앞 잔디광장에서는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어린이날 행사’가 열린다.

저글링 서커스, 옴니버스 미술쇼 등 문화 공연을 시작으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DJ와 함께하는 현장 노래방, 어린이 랜덤탄스, 금은보화 보물찾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가족을 맞이한다.

대형 에어바운스 2대가 설치되며 네일·헤어·모자아트 체험, 가족액자·



어린이날 황금연휴 광주 곳곳서 문화행사.

/광주시청

캐릭터 부채 만들기 등 체험부스도 운영된다.

광주시청 1층 시민홀에서는 ‘아동친화도시 광주’를 주제로 시화작품이 전시되고 안전체험관도 오전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운영된다.

광주광역시립도서관(무등·사직·산

수)에서는 5월 한달동안 다채로운 독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무등도서관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나만의 구슬풍선 꾸미기 체험(5월3일), 봄 소풍 도시락 만들기 체험(4일)이 진행되고 사직도서관에서는 독서 포춘쿠기 뽑기(3~4일), 카네이

션 만들기 체험(7일), 그림책 원화 전시, 연체자 클린데이 열린다.

산수도서관에는 나만의 외펜 키팅 만들기(4일), 매직별문쇼 공연(4일), 책저금통, 책 포스터 등의 행사가 마련돼 있다.

광주역사민속박물관에서는 5일 어린이·가족 한마당 행사가 진행된다.

페이스페인팅, 민속놀이, 무형문화유산 만들기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과 마술쇼, 풍선쇼 등 다채로운 공연으로 구성됐다.

박물관 분관인 신창동 마한유적체험관, 무등산 분청사기전시실 등을 소개하는 홍보부스도 함께 운영된다.

광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어린이날 황금연휴를 맞아 가족들이 즐길 수 있는 행사가 광주 곳곳에서 펼쳐진다”며 “무료로 펼쳐지는 행사를 통해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광주=양수영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영덕군

농어민수당, 내달 2일부터 지급

경북 영덕군(군수 김광열)은 2025년 농어민수당을 오는 5월 2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영농 시기에 맞춰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속 가능한 농어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

지급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 경상북도에 1년 이상 거주하며 실제 농어업에 종사한 경영주로, 총 5599명이 해당된다.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해당하는 농협 지점을 방문해 본인 확인 후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영덕군은 수당을 1인당 60만원씩 영덕사랑상품권으로 일괄 지급한다.

/영덕(경북)=손기섭 기자 gbnews8082@

울산항만공사

공공기관 안전관리 ‘2등급’ 달성

울산항만공사(UPA)가 기획재정부 주관 ‘2024년 공공기관 안전관리 등급제’ 심사에서 2년 연속 공공기관 최고 등급인 2등급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2020년 신설된 안전관리 등급제는 공공기관의 안전 수준 향상을 통해 사회 전반에 성숙한 안전문화를 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올해는 건설 현장 등 위험한 작업 환경을 가진 7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능력과 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울산항만공사는 이번 평가에서 종합적 함만안전 판단지표인 ‘하역안전지수’를 개발해 고도화 및 표준화를 추진한 점과 중소기업 사업장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 등을 통해 안전한 항만 생태계 조성에 노력한 점을 인정받았다.

/울산=이도식 기자

남해군

독일마을맥주축제 일정 확정

남해군의 대표 가을 축제인 ‘제13회 독일마을 맥주축제’가 10월2일부터 4일까지 열린다.

28일 남해군에 따르면 이번 축제 일정은 지난 24일 열린 기획단 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 개천절 연휴 전 기간인 10월 초가 관광 수요와 농번기 일정을 고려해 최종 결정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2기 독일마을 맥주축제 기획단의 공식 출범도 이뤄졌다. 제1기 기획단의 임기 만료에 따라 지역 단체와 청년 중심으로 새롭게 구성된 제2기 기획단은 이번 회의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남해(경남)=이도식 기자

진주시

진주사랑상품권 150억 발행

진주시가 가정의 달을 맞아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오는 5월 1일부터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 150억원을 발행한다.

2025년 진주사랑상품권의 총 발행규모는 600억원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상반기 발행규모를 300억원으로 상향했다. 앞서 1월에 160억원, 3월에 80억원을 발행했으며 하반기에는 홀수 달과 함께 축제 기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10월에도 상품권을 발행할 계획이다.

/진주(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부산상공회의소, 대선 건의과제 발표

‘부산경제계 제언집’ 발간 4개 분야 24개 건의 과제 담겨

부산상공회의소는 오는 6월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부산경제계 대선 건의과제를 발표하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부산시당에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한 ‘제21대 대통령 후보에게 드리는 부산경제계 제언집’에는 4개 분야 24개 건의과제가 담겼다.

남부권 실질적 거점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4대 인프라 확충과제, 글로벌 해양수도로 도약시키기 위한 5대 전략과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9대 기업정책과제, 산업구조 전환과 고도화를 위한 6대 육성과제다.

4대 인프라 확충과제로는 ▲부산 맑은 물 공급 ▲한국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 ▲부산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조속 제정 ▲제2차 공공기관 부산 이전 등이 포함됐다.

5대 전략과제로는 ▲해양수산부 기능 강화 및 부산 이전 ▲북극항로

구축지원 특별법 제정 ▲해사법원 설립 ▲해운거래스 설립 ▲HMM 본사 이전 등이 포함되었다.

부산상의는 해양정책 컨트롤타워인 해양수산부의 전략적 지역 배치를 통해 부산을 명실상부한 해양수도로 재편하고, 북극항로 구축과 해운 대기업인 HMM 본사 및 해양 관련 기관을 유치함으로써 부산항을 세계적 복합물류허브로 도약시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9대 기업정책 과제로는 기업 4대 규제에 대한 현장 수용성 제고를 핵심 과제로 꼽았다. 6대 육성과제 부문에서는 부산형 복합리조트 유치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 밖에도 ▲전력반도체 특화단지 활성화 ▲남부권 첨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소형모듈원자로 산업 육성 ▲친환경 수소모빌리티·항만산업 육성 ▲이산화탄소 저장·활용 산업 육성 등 지역산업 특성을 반영한 미래형 산업 고도화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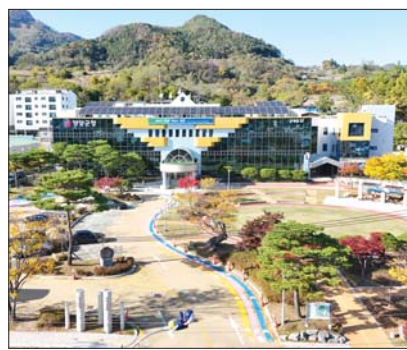
영양군, 고향사랑기부제 ‘위기브’ 도입

플랫폼 설명회, 마케팅 교육 시행

영양군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4월 초에 민간플랫폼 ‘위기브(Wegive)’를 도입했으며,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플랫폼 설명회와 답례품 업체 마케팅 및 판매 전략 교육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기존 공공플랫폼과 달리, 전문 마케팅 및 고객 응대, 답례품 업체 컨설팅까지 제공돼, 모금 확대는 물론 지역 특산물 홍보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민간플랫폼 도입으로 온라인 창구를 확대해 고향사랑기부제가 활성화되고, 기부자, 지자체, 답례품 생산 및 판매자 모두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다.

이번 교육은 위기브(Wegive)의 전문성을 활용해 지역 업체들이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온라인 판매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



영양군청.

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고향사랑기부제의 답례품으로 선정된 지역 특산물의 가치를 높이며, 기부자들의 만족도를 향상하게 시키는 방안들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민간플랫폼 위기브(Wegive)와 협업을 통해 지역 업체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부자들에게 더욱 다양한 창구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영양(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

대구시, 군위군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 절반 감면

대구시가 인구감소지역인 군위군에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감면한다.

28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24일 대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대구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군위에 3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50%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1주택자의 경우 군위가 아닌 타 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취득세 감면을 받은 주택을 3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증여할 경우에는 감

면 받은 세액을 추징 당하게 된다.

이번 시세 추가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것으로 부동산 투기 등을 막기 해 인구 감소 기초지자체 중 광역시에서는 군만 해당된다.

조례는 5월 중 공포될 예정이지만 상위법 시행일에 따라 올해 1월 1일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내년까지 적용된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주택 취득세 추가 감면을 추진하게 됐다. 주택 구입에 따른 자금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인구 유입을 확대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김강석 기자 presskim@

울산시, 공동주택 사업승인 위치도 제작

맞춤형 주거공간 정보 제공

울산시는 오는 5월 1일부터 시민들이 공동주택 사업승인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위치도를 제작해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위치도는 구·군별로 정리돼 있으며, 사업 주체, 위치 및 세대수 등을 담고 있다.

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장은 총 116개소이며 5만여 세대에 달한다. 남구가 51개소 1만7000여 세대, 울주군 25개소 1만3000여 세대, 중구가 22개소 1만5000여 세대, 북구는 13개소 5000

여 세대, 동구는 5개소 1000여 세대로 집계됐다.

이들 사업장 가운데 공사 중인 곳도 있지만 사업승인 후 착공을 위한 준비 단계에 있는 곳도 다수 있다.

제공되는 자료는 울산시 누리집에서 분야별 정보(건설/주택/토지) 주택허가) 주택행정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내 집 마련을 준비하고 있는 시민들이 원하는 지역에 다양한 규모의 아파트를 비교하면서 맞춤형 주거공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이도식 기자

“로우태그 확인하세요… ‘K-소스’ 당·칼로리 확 줄었다”

대상 ‘LOWTAG’ 엠블럼 도입

건강을 중시하는 ‘헬시플레저(Heal thy Pleasure)’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국내 식품업계에도 ‘저당·저칼로리’ 제품 바람이 거세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미 무설탕·저당 제품이 주요 식품 트렌드로 자리잡은 가운데, 국내에서도 당 섭취를 줄이려는 소비자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

이에 대상㈜ 청정원은 저당·저칼로리 제품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LOWTAG(로우태그)’ 엠블럼을 도입하고 다양한 제품군으로 시장 공략에 나섰다.

현재 글로벌 저당·무설탕 식품 시장은 매년 5~7%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특히 설당 대비 칼로리가 10분의 1에 불과하고 혈당에도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알룰로스’ 같은 천연 대체당이 주목받으며, 기능성 당류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다.

국내에서도 비만·당뇨 등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정부 캠페인이 강화되면서 식품업계 전반에 ‘저당화’ 움직임이 가속되고 있다. 맛은 유지하되 당은 줄이려는 MZ세대 수요까지 더해지며, 대체당 기반 프리미엄 제품 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

대상㈜은 이같은 흐름에 맞춰 저당·저칼로리 제품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시장 공략에 본격 나섰다. 동시에 저당·



대상㈜이 선보인 LOWTAG(로우태그) 엠블럼과 저당·저칼로리 신제품 5종.

/대상㈜

식약처 저·무 강조표시요건 충족 로우스펙 제품군 ‘자체 인증마크’

저당 현미 고추장 등 5종 선보여 연내 총 20여종 라인업 구축예정

저칼로리 제품을 한눈에 식별할 수 있도록 ‘LOWTAG’ 엠블럼을 새롭게 도입했다. ‘LOWTAG’는 당류, 칼로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한 저(低)·무(無) 강조표시요건을 충족한 로우스펙(Low Spec) 제품군에 부착하는 자체 인증 마크다. 청정원의 전 제품 포트폴리오를 아우르며 균형 잡힌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제안한다는 전략이다.

대상㈜은 2023년 7월, 전북 군산에 알룰로스 전용 공장을 구축하고 대체당 대표 소재인 알룰로스를 자체 생산 중이다. 이번 ‘LOWTAG’ 제품군에도 자체 효소 기술로 만든 알룰로스를 적

극 활용할 계획이다. 소재부터 완제품까지 수직계열화를 완성하며 국내외 저당·저칼로리 시장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상㈜ 청정원은 한식 요리에 가장 자주 쓰이는 고추장, 된장, 간장 등의 장류를 비롯해 음용식초류, 소스·드레싱류 등 다양한 카테고리에서 저당·저칼로리 제품군을 확대할 예정이다. 기존 일반 제품군은 유지하면서 ‘LOWTAG’ 라인을 추가하는 전략으로, 더 다양한 소비자 니즈를 충족시키고 저감 식품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청정원은 ‘순창’과 ‘햇살담은’ 브랜드를 통해 올해까지 총 20여 종의 제품 라인업을 구축할 예정이다.

가장 먼저 선보이는 저당·저칼로리 신제품은 순창 ‘저당 현미 고추장’, ‘저당 초고추장’, ‘저당&저칼로리 비빔면소스’, ‘차돌 저당 된장찌개양념’, ‘햇살담은’ ‘저당 맛간장’ 등 총 5종이다.

순창 ‘저당 현미 고추장’은 고추장의

단맛을 내는 올리고당 대신 알룰로스를 사용해 100g당 당류 함량을 약 3g으로 낮췄으며, 기존 고추장 대비 당류 함량을 약 86% 낮춘 제품이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현미를 사용해 건강한 집밥 요리에 적합하다. ‘저당 초고추장’은 새콤달콤한 맛을 그대로 살리면서 당류를 100g당 4g 수준으로 줄였다. ‘저당&저칼로리 비빔면소스’는 100g당 당류 3g, 칼로리는 35kcal까지 낮춰 다양한 면 요리에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순창 ‘차돌 저당 된장찌개양념’은 밀가루 없이 콩으로 만든 된장에 마늘, 양파, 대파 등 채소와 알룰로스를 더해 100g당 당류 함량을 1g까지 낮췄다. 청정원만의 차돌북음비법을 적용해 별도의 육수나 추가 양념 없이도 깊은 감칠맛을 구현했다. ‘햇살담은’ ‘저당 맛간장’은 알룰로스와 국산 사과, 배, 매실 등으로 단맛을 내면서 100g당 당류를 3g으로 낮췄으며, 다시마, 표고, 홍게 등을 넣은 육수로 깊은 풍미를 더했다.

박종섭 대상㈜ 마케팅실장은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저당·저칼로리 시장을 본격 공략하고, 청정원의 노하우를 담아 ‘LOWTAG’ 라인을 선보이게 됐다”며 “앞으로도 장류, 음용식초, 소스류 등 다양한 제품을 통해 당류와 칼로리에 대한 부담 없이 더욱 맛있고 건강하게 즐기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롯데온

단독상품 전용 ‘애플딜’ 누적구매자 350만 돌파

롯데쇼핑의 e커머스 플랫폼 롯데온이 단독 상품 전용 플랫폼 ‘애플딜’의 누적 구매자 수가 350만 명을 넘어섰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처음 선보인 애플딜은 롯데온 애플리케이션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전용 상품 또는 단독 구성 상품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플랫폼이다.

롯데온에 따르면, 대표 인기 상품으로는 ‘사조참치 10+10 골라담기’, ‘베이지하우스 순면 반팔 티셔츠 7장 세트’ 등이 있다. 이 외에도 ‘수플린 태국 골드망고’는 일 매출 1억5000만원을 기록했고, ‘유러피안 샐러드’는 리뷰 수 4800건을 넘어섰다.

최근에는 ‘쿠진아트 에어프라이어 그릴 오븐’, ‘돌체구스토 지니오 S터치 화이트 세트’ 등 소형 가전으로 상품군을 확대하며 누적 구매자 수 증가를 이끌었다는 게 롯데온 측 설명이다. 화장품 부문에서는 전용 패키지 상품도 출시했다.

/안재선 기자

현대백 ‘이재모피자’ 팝업

“줄서서 먹는 피자집 백화점에서 만나요”

현대백화점이 내달 10일까지 커넥트현대 부산점 지하 2층에서 ‘이재모피자’ 팝업스토어를 연다고 28일 밝혔다.

현대백화점에 따르면, 이재모피자는 1992년 부산에서 문을 연 지역 대표 음식점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줄 서서 먹는 피자집’으로 알려진 가게다.

현대백화점은 이번 팝업스토어를 통해 이재모치즈크러스트, 새우피자, 불고기피자, 포테이토피자, 페퍼로니피자 등 이재모피자의 대표 메뉴를 선보인다.

이번 이재모피자와의 협업은 현대백화점이 1년 넘게 유지 협의를 이어간 끝에 성사됐다. 현대백화점은 이재모피자가 ‘지역을 지키는 브랜드가 되고 싶다’는 경영 철학을 이유로 여러 유통업체의 입점 제안을 거절해 왔으나, 자사와의 지속적인 협의 끝에 전국 유통업체 중 처음으로 팝업스토어를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대백화점은 앞으로도 지역음식점 유치를 확대해 차별화된 콘텐츠를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내달 11일부터는 커넥트현대 부산점에서 부산 강동 야시장을 콘셉트로 ‘뽕뽕이호떡’, ‘다래분식’ 등 부산 전통 지역 음식점을 업계 최초로 소개한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부산의 대표 맛집인 이재모피자를 커넥트현대에서 소개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 문화의 구심점으로서 고객에게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롯데백 ‘괴수8호’ 팝업 연다

내달 1일 타임빌라스 수원서 80여종 괴수8호 캐릭터 마련

롯데백화점이 소풍몰 타임빌라스 수원 1층 메인광장에서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 1층 ‘괴수8호’ 팝업스토어를 국내 최초로 선보인다고 28일 밝혔다.

괴수8호는 일본 만화 지적재산권(IP) 기반 콘텐츠다. 괴수8호는 연재 개시 약 1년 만에 단행본 발행 부수 250만 부를 달성했으며, 2025년 4월 기준 누적 발행 부수는 1800만 부를 넘어섰다.

이번 팝업스토어에는 80여 종의 괴수8호 캐릭터 상품이 마련됐다. 이 중 85%는 국내에서 처음 선보이는 제품

으로, 피규어, 의류, 포토카드, 열쇠고리, 스탠드 등이 대표적이다. 사전 예약 고객을 대상으로 포스터 카드와 사각스티커를 랜덤으로 증정하고, 괴수8호 전용 포토부스도 운영할 계획이다.

롯데백화점 최성율 소풍몰마케팅팀장은 “이번 팝업스토어는 단순한 굿즈 판매를 넘어, 애니메이션 팬들에게 몰입도 높은 콘텐츠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며 “차별화된 콘텐츠를 지속 선보임으로써 타임빌라스가 2030 세대들에게 쇼핑, 여가, 문화가 융합된 플랫폼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삼양식품 ‘출동 후레시맵’ 캠페인 진행

맵탱 비빔면 출시 기념 한달간

삼양식품은 ‘맵탱 쿨스파이시 비빔면 김치맛’(이하 맵탱 비빔면) 출시를 기념해 다음달 18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전국 각지에서 ‘출동 후레시맵’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출동 후레시맵’ 캠페인은 먹을수록 시원해지는 맵탱 비빔면의 특성을 널리 알리고, 방문객들과 직접 소통하며 유쾌하게 무더위를 이겨내기 위해 기

획됐다. 서울 주요 변화가에 이어 부산, 대구, 하남, 이천 등 전국 각지에는 5월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먼저 맵탱 비빔면의 대표 컬러인 민트색 유니폼을 입은 후레시맵 요원들이 지역 인기 매장을 방문해 에어컨 전원을 30분 간 끄는 제안을 하고 매장이 동의할 경우 모든 손님에게 제품을 증정하는 ‘에어컨 오프(OFF) OX게임’을 진행한다.

/신원선 기자



‘새미네부엌X쿠크엔 집밥 팝업’에 참가한 참여자들이 집밥을 직접 요리하고 있다.

/샘표

샘표, 새미네부엌X쿠크엔 집밥 팝업 인기

30일까지 서울 샘표 본사에서 진행 하루 5회, 회당 20명씩 600명 대상

샘표의 ‘새미네부엌’과 쿠크엔이 함께 진행하는 ‘새미네부엌X쿠크엔 집밥 팝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팝업은 30일까지 서울 중구 샘표 본사 1층 우리맛공간에서 열리며, 외식이 나 배달에 익숙한 소비자들에게 집밥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게 하고 직접 요리를 체험할 수 있는 전시 행사로 기획됐다. 25일부터 30일까지 하루 5회, 회당 20명씩 총 6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샘표와 쿠크엔은 ‘건강하고 맛있는 집밥’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손을 잡았다. 두 기업은 밥과 반찬이라는 한식의 기본을 대표하며, 이번 팝업을 통해 집밥을 더 쉽고 즐겁게 만들 수 있는 방법

을 제시하고 있다.

행사장에 들어서면 따뜻한 집밥 식탁을 재현한 공간이 펼쳐진다. 봄나물을 비롯해 다양한 채소를 활용한 우리 맛 연구 결과와, 재료 손질법·보관법·주방도구 사용법 등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나만의 요리북’을 만들 수 있는 코너도 인기다. 귀여운 스티커와 함께 직접 꾸미는 요리북에는 QR코드가 포함되어 있어, ‘새미네부엌 플랫폼’에서 600여 개 레시피와 요리 솔루션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요리 체험 프로그램 역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김메스토’와 ‘알배추 겉절이’ 등 밥과 함께 곁들이기 좋은 반찬을 직접 만들어볼 수 있다.

/신원선 기자

세계 최대 암학회서 차세대 ‘K-항암신약’ 경쟁력 알린다

〈미국암연구학회 2025〉

셀트리온 CT-P72 전임상 결과
포도테라퓨틱스 암 오가노이드와
면역세포 공배양 플랫폼 성과 소개
동아에스티 SC2073 비임상 결과
한미약품 11개 비임상 결과 공개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현재 개발 중인 차세대 항암 신약의 경쟁력을 세계에 알리고 있다. 국내 기업들은 오는 30일까지 미국 시카고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암학회인 ‘미국암연구학회(AACR) 2025’에서 새로운 기전의 항암 신약의 임상 결과를 잇달아 공개하며 주목을 받았다.

셀트리온은 28일 AACR 2025에서 다중항체 기반 항암 신약 ‘CT-P72’의 전임상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CT-P72는 셀트리온이 미국 바이오 테크 기업 에이비프로(Abpro)와 공동 개발 중인 다중항체 면역항암제로, 인간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HER2)를 발현하는 암세포와 면역세포인 T세포를 연결해 암세포를 제거하는 ‘T세포 인게이지어(TCE)’ 기반 치료제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CT-P72는 HER2와 면역세포 표면 단백질(CD3)을 동시에 목표로 삼아 T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정상세포에 대한 독성은 최소화하도록



ChatGPT에 의해 생성된 국내 제약·바이오 연구진이 항암신약을 개발해 세계 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이미지.

설계됐다. 특히, 암세포에 선택적으로 작용해 높은 종양 억제 효과를 나타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CT-P72는 전임상을 통해 우수한 내약성을 확인한 만큼 신약으로 개발 가능성을 한층 높게 봤다”며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다중항체 치료제 개발을 본격화하고 차세대 항암제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도테라퓨틱스는 암 오가노이드와 면역세포 공배양 플랫폼을 활용한 정밀 치료 반응 예측 연구 성과를 공개했다.

첫 번째 포스터 발표는 폐암, 위암, 직장암 환자 유래 암 오가노이드에 면

역세포를 함께 공배양한 뒤, 다양한 항암제 및 방사선에 대한 반응을 분석한 연구다. 연구팀은 방사선 조사 후 세포 생존율, DNA 손상 반응 등을 정량 평가했으며, 실제 환자 임상 반응과 비교한 결과 높은 일치도를 보였다. 이번 연구는 면역 미세환경의 재현 문제를 극복하고, 개인 맞춤형 방사선 치료 전략을 수립하는 데 활용될 수 있는 정밀 예측 도구로 주목받고 있다.

두 번째 포스터에서는 위암 환자의 복수에서 유래한 종양세포를 오가노이드로 배양하고, 여기에 환자 유래 말초 혈액 단핵세포(PBMC)를 공배양한 후

면역관문억제제를 처리해 면역 반응성을 분석했다. 실제 환자의 치료 결과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 환자 맞춤형 면역항암제 처방을 위한 핵심 기술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모았다.

포도테라퓨틱스 김정은 상무는 “우리 플랫폼은 단순 실험 수준을 넘어, 실제 환자의 예후를 예측하고 정밀 치료를 설계할 수 있는 통합 솔루션”이라며 “향후 인공지능(AI) 기반 분석 기술과의 결합을 통해 더욱 고도화된 정밀의료 솔루션을 선보일 것”이라고 전했다.

동아에스티는 HK이노엔과 공동연구 중인 표피 성장인자 수용체(EGFR) 표적 단백질 분해제 ‘SC2073’의 비임상 결과를 포스터 발표한다.

동아에스티는 이번 학회에서 EGFR 내성 돌연변이를 가진 비소세포폐암(NSCLC) 환자를 대상으로 내성을 극복하기 위한 최신 연구 성과와 암 치료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소개할 예정이다.

SC2073은 EGFR의 알로스테릭 결합부위에 작용하며 기존 비소세포폐암 치료제에 내성을 보이는 돌연변이 EGFR만을 선택적으로 분해하며, 정상 EGFR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1일 1회 경구 투여 방식으로 복용 편의성도 갖췄다.

한미약품은 총 11개의 비임상 연구 결과를 공개하며, 3년 연속 국내 제약바

이오 업체 중 가장 많은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

한미약품은 이번 AACR에서 ▲EZ H1/2 이중저해제(HM97662) 2건 ▲선택적 HER2 저해제(HM100714) 2건 ▲MAT2A 저해제(HM100760) ▲SOS1 저해제(HM101207) ▲STING mRNA 항암 신약 ▲p53-mRNA 항암 신약 2건과, 북경한미약품이 주도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이중항체 플랫폼(펜탐바디) 기반의 ▲BH3120 2건 등 총 7개 신약 후보물질에 관한 연구 결과를 포스터로 발표한다.

차세대 표적항암 신약 ‘EZH1/2 이중저해제(HM97662)’의 새로운 바이오마커를 제시하고, 표준 화학요법제와 병용 시 항암 효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연구 근거를 발표한다. 또 HER2 변이암에 대한 경구용 치료제로 개발 중인 ‘선택적 HER2 저해제(HM100714)’의 중추신경계 종양에 대한 항암 효력과 앤허투 내성 극복에 대한 연구 결과를 공개한다.

AACR은 미국 임상종양학회(ASCO), 유럽 종양학회(ESMO)와 함께 세계 3대 암학회로 손꼽힌다. 전 세계 암 연구 분야 전문가 및 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항암 치료 및 신약 관련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는 학회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K뷰티, 자사몰 등으로 ‘충성고객’ 확보 속도

CJ올리브영, ‘루테카’ 상표 출원
아모레퍼시픽, 뷰티포인트 재단장
에이피알, 자사몰 통해 신뢰도 ↑

K뷰티 업계가 단순히 브랜드 파워를 키우는 데 그치지 않고, ‘충성고객’을 확보하고 유통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펼친다.

28일 국내 뷰티 업계에 따르면, CJ올리브영은 자체 브랜드 확장에 속도를 낸다. 올리브영은 지난 7일 ‘루테카’라는 상표를 출원했다.

이 상표는 키프리스(KIPRIS) 상품 분류 제3군에 속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3군은 화장품 및 미용 관련 제품을 포괄하는 범위로, 비의료용 헤어밤, 헤어케어제, 헤어회복보선 등을 포함한다.

올리브영은 지금까지 스킨케어, 메이크업, 미용 소품 등 다양한 뷰티 영역에서 자체 브랜드를 마련해 왔다.

출시 10주년을 맞이한 메이크업 브랜드인 ‘웨이크메이크’는 이달 서울 성수에서 쇼룸을 운영하며 올리브영이 추구하는 체험형 뷰티 서비스를 제공했다.

비건 화장품 브랜드 ‘브링그린’은 K콘텐츠와 협업한 제품을 출시해 글로벌 소비자를 정조준하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넷플릭스 K드라마 ‘오징어게임’을 응용한 브링그린 한정판은 지난해 12월 말 한국, 미국, 일본 등을 포함한 9개국에서 동시 판매됐다.

또 ‘탄탄’은 올리브영이 지난해 11월 처음 공개한 건강기능식품 전문 브랜드로, 뷰티와 헬스 분야에서 쌓아온 올리브영의 노하우가 집약됐다.



지난 13일 서울 성수에서 열린 ‘웨이크메이크 쇼룸’ 전경.

/CJ올리브영

올리브영은 현재 국내 전역에서 1400여 개에 달하는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웹과 모바일 모두에서 구동 가능한 온라인몰, 온·오프라인 경계를 넘어선 오늘날 서비스 등을 독자 구축해 뷰티 시장에서 영향력을 넓혔다.

국내 대표 뷰티 브랜드들도 자생력을 키우는 데 집중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의 경우, 지난해 통합 멤버십 ‘뷰티포인트’를 전면 재단장해 선보였다. 뷰티포인트는 아모레퍼시픽 브랜드 제품 구매 시 적립할 수 있고, 적립된 포인트는 특정 브랜드 관계없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다.

새로운 슬로건 ‘아름다움의 포인트를 발견하다’를 도입해 고객 서비스 고도화에 나선 것도 특징이다. 아모레퍼시픽에 따르면, 해당 슬로건은 ‘뷰티포인트’가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경험의 지점(포인트)이 될 것이라는 의미다.

이에 따라 아모레퍼시픽은 뷰티포인트 제도를 통해 다양한 뷰티 전문 콘텐

츠를 접할 수 있는 기회와 고객 혜택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에이피알은 자사몰을 적극 활용한다. 에이피알은 현재 국내는 물론, 미국, 일본, 중화권(홍콩,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에서 자사몰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에이피알은 중간 수수료 없는 보다 합리적인 가격을 적용해 자사몰이 구매처 기능과 함께 브랜드 신뢰도를 높여주는 창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에이피알은 일찍이 자사몰 외에 뷰티 디바이스와 연동하는 모바일 서비스로도 소비자와 적극 소통해 왔다. ‘메디큐브 에이지알’ 앱은 뷰티 디바이스 ‘에이지알’ 제품 사용자를 위해 지난 2022년 3월 처음 마련됐다. 이후 영어, 일어 버전 등으로 다변화를 거쳤고, 에이피알은 초개인형 맞춤 관리, 제품 추천 기능 등에 중점을 두고 개선해 나가고 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교촌치킨 ‘문베어’, 프리미엄 유통채널 확대

홀리데이 인 인천 송도에 체험존 선포

교촌에프앤비가 운영하는 수제맥주 브랜드 ‘문베어’가 인천 연수구에 위치한 ‘홀리데이 인 인천 송도’에 수제맥주 체험존 ‘문베어존’을 선보이며 프리미엄 유통 채널 확대에 나섰다

홀리데이 인 인천 송도 1층 라운지에 마련된 문베어존은 문베어의 수제맥주와 굿즈를 한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브랜드 체험존으로, 숏인숍(shop-in-shop) 형태로 마련됐다.

판매 메뉴는 ▲윈드힐 라거 ▲문댄스

골든에일 ▲질은밤 페일에일 ▲여름밤 IPA ▲소빈블랑 IPA ▲모스카토 스위트에일 캔맥주 6종으로, 캔맥주 전용 냉장 진열대도 함께 비치해 고객들이 시원하게 맥주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문베어의 브랜드 감성을 담은 인형, 키링, 에코백, 파우치 등 다양한 문베어 굿즈도 선보였다.

홀리데이 인 인천 송도는 인터컨티넨탈호텔그룹(IHG)이 운영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호텔로, 인천국제공항과 가까워 외국인 관광객은 물론, 비즈니스 고객의 유입도 활발한 곳으로 꼽힌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셀트리온, 1000억 규모 추가 자사주 매입

올해 들어 약 4500억 자사주 취득

셀트리온은 이사회를 통해 약 1000억 원 규모의 추가 자사주 매입을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29일부터 장내매수 방식으로 자사주 63만1712주를 매입한다.

셀트리온은 올해 들어 약 4500억원 수준의 자사주를 취득했다. 자사주 매입뿐 아니라 자사주 소각도 적극 추진해, 소각을 완료했거나 결정한 자사주의 총 규모는 약 8000억원에 달한다.

최근에는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 지주사 셀트리온홀딩스, 계열사 셀트리온스킨케어가 각각 500억원, 1000억원, 500억원 규모의 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이를 합산하면 그룹 차원에서 장

내 매입하는 셀트리온 주식의 총 규모는 약 6500억원으로 커질 전망이다.

셀트리온은 ‘올해 매입한 자사주는 모두 소각한다’는 주주 친화 정책을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에도 약 436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취득하고 약 7000억원 이상의 자사주 소각을 완료해 주주가치를 높였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기업 가치가 저평가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릴레이로 진행하는 등 주주가치 극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국내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셀트리온그룹의 성장에 대한 확신을 갖고 실적 확대와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미래 모빌리티의 일부이자 **전부**.

어쩌면 우리의 기술은
모빌리티의 일부.
하지만 이것은 분명,
미래 모빌리티의 전부를 뒤바꿀 것입니다.



이동 경험의 전부를 바꾸는
| 자율주행 솔루션 |



시각 경험의 전부를 바꾸는
| IVI 솔루션 |



에너지 솔루션의 전부를 바꾸는
| 차세대 전동화 시스템 |



익숙한 움직임의 전부를 바꾸는
| E-코너 시스템 |



동서식품, 대구용호초등학교 ‘꿈의 도서관’ 지원

동서식품은 28일 대구광역시 동구에 위치한 대구용호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 도서 지원 프로그램인 ‘제9회 동서식품 꿈의 도서관’을 진행했다. 동서식품 최상인 홍보상무(왼쪽)와 대구용호초 권명숙 교장(오른쪽)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동서식품



NS홈쇼핑, 세이브더칠드런 ‘그린리모델링’ 사업 후원

NS홈쇼핑이 지난 25일 판교 본사에서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과 아동복지시설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후원하는 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NS홈쇼핑은 이번 협약을 통해 5년간 4억원을 지원한다. 조항목 NS홈쇼핑 대표 이사(오른쪽부터)와 정태영 세이브더칠드런 총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NS홈쇼핑



아워홈-대학생協, ‘공세알 프로젝트’ 전개

아워홈은 한국대학생활협동조합연합회(대학생협)와 함께 ‘공세알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세알 프로젝트’는 대학생협이 대학생들의 식비 부담을 덜기 위해 기획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매 학기별 간편식과 간식 등 식사용 제품을 하나의 꾸러미로 만들어 배송하는 활동이다. /아워홈



BMW코리아미래재단, ‘희망ON 학교’ 시행

BMW코리아미래재단은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 굿네이버스와 함께 아동 지원 사업 ‘2025 희망ON(온)학교’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아동의 심리와 정서적 건강을 위한 마음 돌봄 프로그램 ‘내 마음을 피자!’와 아동 주도형 체험 활동 및 가족 관계 향상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진 ‘다함께 행복ON’ 등을 운영한다. /BMW코리아



LX인터내셔널, ‘패밀리데이’ 행사… 300명 참석

LX인터내셔널은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소재 LX인터내셔널 본사에서 임직원 및 가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패밀리데이’ 행사를 열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사무공간 투어, 가족사진 촬영, 경품 추첨 등 다양한 가족 단위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LX인터내셔널

삼성전자 “어린이들에게 새로운 갤럭시 AI 경험 제공”

키자니아 서울·부산점 콘텐츠 강화 체험관 스토리·미션 지속 업데이트

삼성전자가 어린이를 위한 ‘갤럭시 인공지능(AI)’ 체험 공간을 키자니아 서울점과 부산점에 선보인다.

삼성전자는 지난 25일부터 갤럭시S25 시리즈를 활용해 키자니아 서울점 ‘AI 비밀 본부 체험관’을 재단장하고, 같은 날 부산점에도 신규 체험관을 오픈했다고 28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0월부터 서울 잠실에 있는 직업 체험 테마파크 키자니아서울점에서 ‘갤럭시Z폴드6·Z플립6’를 활용한 ‘AI 비밀 본부 체험관’을 운영하고 있다. 이 체험관은 오픈 후 지금까지 누적 방문객 2만명을 돌파했으며, 어린이 만족도



키자니아 서울 ‘인공지능(AI) 비밀 본부 체험관’에서 키자니아 어린이 의회 의원이 ‘AI 오디오 지우개’로 영상 속 소음을 빠르게 편집하고 있다. /삼성전자

98.1점으로 전체 체험관 중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서울점 재단장을 통해 기존 하늘을 나는 ‘비밀 제트기’ 콘셉트에서 바다를 누비는 ‘비밀 잠수함’ 테마로 변경했다. 어린이들은 AI 비

밀 요원이 되어 ▲AI 에이전트 호출 ▲오디오 지우개 사용 ▲디지털 키 활용 등 갤럭시 S25 시리즈의 다양한 AI 기능을 활용해 임무를 수행한다. 부산점에 새로 문을 연 ‘AI 비밀 본부 체험관’은 서울점과 동일한 시

곽노정 사장 “협력사 ‘원팀 파트너십’ 성장”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 동반성장협의회 성료 소·부·장 등 공동 핵심 과제 공유

SK하이닉스가 지난 25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 워커히에서 ‘2025년 동반성장협의회 정기총회’를 열고 협력사들과 인공지능(AI) 시대속 반도체 산업의 상생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동반성장협의회는 SK하이닉스가 협력사와의 상생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01년 결성한 협의체이다. 올해 총회에는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과 92개 협력사 대표들이 참석해 반도체 산업의 변화 속에서 상생 협력의 중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이 지난 25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 워커히에서 열린 ‘2025년 동반성장협의회 정기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서는 SK하이닉스의 최신 비즈니스 동향과 시장 전망을

비롯해 협력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상생 프로그램이 소개됐다. 특히 올해 소재·부품·장비·인프라 분과별로 공동의 핵심 과제가 공유됐다.

SK하이닉스 측은 “협력사의 발전이 곧 SK하이닉스의 발전”이라며 “협력사가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현장 중심의 협력과 기술 경쟁력 제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현재 SK하이닉스는 기술 인프라를 공유하는 ‘기술혁신기업’, ‘패턴 웨이퍼 지원’, ‘분석측정지원사업’ 등을 운영 중이며 저금리 상생 펀드를 등을 통해 협력사의 기술 개발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혜민 기자

근로복지공단, 산재 근로자 위로 음악회

‘위로·치유·희망’ 메시지 전달

근로복지공단은 28일 법정기념일 지정 후 올해 처음으로 맞이하는 산재근로자의 날을 기념해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에서 산재 근로자 위로 음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음악회는 산재근로자에게 치료와 사회복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음악

이라는 비언어적 수단을 통해 ‘위로·치유·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연은 퓨전국악, 팝페라, 트롯 등 다채로운 공연으로 구성됐으며, 산업재해로 아픔을 직접 겪은 근로자 뿐만 아니라 그 시간을 함께 견뎌낸 가족과 인근 지역 주민들도 함께 참석해 위로와 희망을 나누는 따뜻한 시간을 가졌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왼쪽 다섯번째)LG화학 CSSO 교운주 전무가 지난 22일 인도 안드라프라데시(AP)주 비사카파트남에서 마을 대표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LG화학

LG폴리머스, 인도 사회공헌법인 설립

현지 CSR 활동 가속화

LG화학의 인도 생산법인인 LG폴리머스가 현지에 재단을 설립하고 지난 2020년 가스 누출 사고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CSR) 활동을 강화한다.

LG화학은 LG폴리머스가 인도 안드라프라데시주 비사카파트남에 추진한 사회공헌법인 ‘LG India CSR Foundation’이 기업행정부로부터 설립을 승인받아 현지 CSR 활동을 가속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재단 이사장에는 비사카파트남 행정시장 등을 역임한 현지 관료로서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과 이해도가 높은 가리자 상카르 전 AP주 국

나리오를 기반으로 공간을 확장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했다. 어린이들은 인물 사진 스튜디오, 실시간 통역, 포토 어시스트 등 다양한 AI 기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특히, 학부모를 위한 별도 체험 공간도 마련됐다. 학부모들은 ‘홈메라 360’이 연결된 스마트싱스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자녀의 미션 수행 모습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갤럭시 스마트폰이 없는 경우에도 ‘트라이갤럭시’ 웹페이지에 접속해 갤럭시의 최신 기능을 경험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앞으로 반기별로 체험관 스토리와 미션을 업데이트해 어린이들에게 지속적으로 새로운 갤럭시 AI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혜민 기자 hyem@metroseoul.co.kr

곽노정 사장은 “SK하이닉스가 AI 시대에 잘 대처할 수 있었던 것은 소재·부품·장비·인프라 협력사 분들의 노력과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며 “대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지만, 협력사와의 ‘원팀 파트너십’을 통해 함께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성엔지니어링 회장인 황철주 동반성장협의회장은 “고대역폭 메모리(HBM)와 같은 AI 메모리 기술 혁신이 가능했던 것은 SK하이닉스와 협의회 회원사들이 두터운 신뢰를 기반으로 상호 협력을 강화했기 때문”이라며 “더 큰 믿음으로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동반성장 활동을 지속해 앞으로도 함께 혁신을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민 기자

인사

◆외교부 ◇대사 △주네덜란드대사 홍석인 △주덴마크대사 이동렬 △주이라크대사 이준일 △주레바논대사 전규석 △주아제르바이잔대사 강금규 △주크로아티아대사 이승범 △주폴란드대사 태준열

◆NH투자증권 ◇부장 신규선임 △프로젝트금융부 유봉송 △AI부 이경준 △신탁운용부 임세웅

◆한국수산자원공단 ◇실장급 △감사 법무실장 오태건 △안전보건실장 김희성 △경영지원실장 노희주 △재무회계

실장 박기정

◆이로넷 △대구·경북취재본부장 강진구

◆이엔셀 △CDMO사업부장 염건선 이사

부음

▲허진석(전 대한주택건설협회장·동성종합건설 회장·향년 77세)씨 별세, 김명옥씨 남편상, 허동욱·허동훈(더에이치홀딩스 대표)·허운정씨 부친상, 진채은씨 시무상, 이창근씨 장인상 = 27일 오전 11시, 강남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30일. 02-2019-4003.



GORILLA KAFFEE

170년 가업으로 이어 온 독일의 장인정신
최상급 원두를 위한 최적의 로스팅

COFFEE IS PLEASURE. WE MAKE THE BEST OF IT. THERE IS NOTHING BETTER THAN SOMETHING GOOD.
THAT'S WHY WE MAKE VERY GOOD COFFEE. ENJOYMENT WITHOUT FRILLS. OUR HOUSE BRAND GORILLA

로베스피에르의 우유



김 준 형 역
청맹과니

18세기 후반, 프랑스에서는 대혁명으로 공포정치의 대명사, 로베스피에르가 집권하게 되었다. 어느 날, 로베스피에르는 ‘모든 어린이는 신선한 우유를 마실 권리가 있다.’며 우유값을 반값으로 내리도록 했다. 이 명령으로 어린이들은 신선한 우유를 마음껏 마실 수 있었을까? 아니었다. 우유값이 생산원가에 미치지 못하자, 낙농업자들이 소를 도축해서 팔아버렸기 때문이다. 우유값이 싸진 것이 아니라, 우유가 아예 사라져 버린 것이다. 로베스피에르는 생산원가를 낮추려고, 이번에는 건초가격을 반값으로 내리라고 명령했다. 그러자 건초를 뿔감으로 팔아버려서, 건초까지 사라져 버렸다. 이 이야기는 국가의 무분별한 개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에 대해서 숙고하게 만든다.

최근 선생님들의 현장체험학습을 거부하는 움직임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2022년의 사고에서 시작된다. 체험학습을 나간 초등학교생이 주차하

던 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최근 법원에서는 담임교사에게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생님들은 ‘교사가 인생 전체를 걸고, 책임을 지면서 체험학습을 가는 것이 맞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선생님들의 항변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어린 학생들이 야외에 나오면, 통제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런 일은 과거에도 있었다. 2017년 있었던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사망 사건이 그 예이다. 당시 신생아들의 사망원인은 ‘시트로바터 프론디’균에 의한 패혈증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으로 간호사 2명, 의사 3명이 입건되었고, 3명이 구속되었다. 구속된 3명 중 한명은 유방암 3기로 투병 중이었다. 2022년 대법원에서는 의료진 전원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 사실 의료계에 있는 사람들은 잘 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세균과 바이러스를 인간이 통제할 방법은 없다. 의사와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손을 자주 씻고, 주변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일밖에 없다. 세균과 바이러스를 통제하는 방법이 있었다면, 코로나19 같은 사태는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무죄판결에도 불구하고, 후폭풍은 무서웠다. 소아과 의사들은 통제가

불가능한 세균과 바이러스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망가질 수 있다는 공포에 휩싸였다. 전국의 대학병원에서는 소아과 전공의 지원자가 사라졌고, 기존의 소아과 전문의들도 소아과 진료를 포기했다. 결국 ‘소아과 오픈런’이란 말까지 생기는 지경이 된 것이다.

물론 체험학습에서 학생이 사망한 사건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다. 이대목동병원의 사건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그 부모님들에게 어떤 말로 위로가 가능할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이에 대해서 과도하게 책임을 묻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긴다. 체험학습의 관리책임을 과도하게 묻게 되면, 안전한 체험학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체험학습 자체가 사라져 버린다. 소아과에 과도한 책임을 물으면, 안전한 소아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소아과 자체가 사라져 버린다. 이미 200년 전에 로베스피에르가 알려 준 사실이다. 과연 국가는 책임을 묻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일까? 국가는 처벌만 하면, 할 일을 다 한 것일까? 2022년 사고 이후, 국가는 사고예방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함께 고민해 보아야 하는 문제일 것이다. /우리마음병원장

지원 절실한 K-배터리



기지 수첩
이 승 용
<산업부>

공부를 잘 하는 두 사람이 있다. A는 집안이 부유해 학업에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고, B는 집안이 가난해 지원 없이 교과서만으로 공부한다. 시험 결과 A는 우수한 성적을 기록했고 B는 더 이상 발전 없이 제자리였다. 집안의 지원이 학업 성적에 미치는 영향으로 볼 수 있다.

현재 글로벌 배터리시장이 이렇다. A는 중국이고 B는 우리나라다. 중국 정부는 1조 위안(약 200조원) 규모의 펀드를 설립해 배터리 등 산업에 대규모 자본을 투자할 예정이다. 또한 CATL, BYD 등 자국 기업에 1조1000억원(60억위안) 규모의 자금을

들여 차세대 전기차의 핵심 분야인 전고체 배터리 연구개발(R&D)을 독려하고 있다. 중국은 설비 투자 및 세금 감면 등으로 자국 배터리 기업 총 투자액의 최대 40%가량을 인센티브로 지원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정부는 2027년까지 나트륨 배터리, LFP 배터리 등 차세대 보급형 배터리 기술 개발에 약 3000억원, 2028년까지 전고체, 리튬메탈, 리튬황 등 유망 배터리 기술 개발에 총 1172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대하기 위한 지원이지만 중국과 비교하면 턱 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중국은 값싼 인건비에 보조금까지 들고 덤비다 보니 우리나라로서는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지난 2020년 국내 배터리 3사의 글로벌시장 점유율은 34.7%에서 현재는 17.7%로 줄었고 중

국 CATL과 BYD의 점유율은 같은 기간 30.7%에서 55.1%로 증가하면서 독보적인 1위이다.

기업들이 뚝뚝하다고 해도 정부의 연구비 지원이 없으면 결국 제자리걸음을 걷게 된다는 것을 최근 4~5년 사이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늦은 감이 있지만 배터리산업에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는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에 여야 모두 힘이 실리고 있다.

지속적인 투자여력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행 이월공제방식으로는 실효성 있는 지원에 한계가 있는 만큼 직접환급, 제3자양도제 도입을 통해 투자 물꼬를 터줄 필요가 있다. 최대규모 미래먹거리 산업 경쟁탈전에서 밀리는데도 정부가 방관한다면 한국 경제 근간을 허무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lsy2665@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4월 29일 (음 4월 2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일이 풀리니 침체하지 말고 능력을 정비. 48년생 먼저 양보하면 나중에 이득이 발생한다. 60년생 소지품 관리 유의. 72년생 잘 지내면 친구와 의견충돌이 예상. 84년생 낮12시에 충살冲殺이 일어나니 교통사고와 언행에 유의.



37년생 순간 변화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진중하여지자. 49년생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내기는 어려울 듯. 61년생 작은 일에 과민반응은 손실로 연결. 73년생 이직하여서 좋을 것이 없을 텐데. 85년생 이웃과의 관계에서 외로워 마라.



38년생 원하는 것이 있다면 천수경을 읽어보라. 50년생 성실한 자세가 승진에 유리한데. 62년생 답답해도 인내심을 가져야 할 듯. 74년생 구설수가 있으니 말조심. 86년생 하기 싫어도 해야 하니 이왕이면 시비를 가리지 말고 하라.



39년생 일에 손이 안 잡혀도 진행하면 이득이 발생. 51년생 급할수록 돌아가라. 63년생 험담을 줄이니 동료와의 관계가 개선된다. 75년생 친절함 이상에게 의심보다는 주관을. 87년생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친구의 도움을 얻도록.



40년생 도난 우려가 있으니 소지품 관리에 유의. 52년생 폭음을 삼가라. 64년생 남을 탓하기 전에 나의 결점도 찾아라. 76년생 연인의 돈 요구에 스트레스가 쌓일 텐데. 88년생 부동산에서 이득이 발생하니 빈집에 소 들어오는 하루.



41년생 좋은 정보로 영업에서 이득을 얻는다. 53년생 요행수보다는 공부해서 투자하도록. 65년생 이성에게 집착하지 말아야 문제가 해결된다. 77년생 상대방이 외화내빈이나 무시하지는 마라. 89년생 평소애 인색하니 언제나 외롭다.



42년생 업무의 능력으로 즐거움이 동반된다. 54년생 과다한 사치로 발등에 돌 찍힌다. 66년생 오라는 곳은 없어도 갈 곳은 있어 하루가 바쁘다. 78년생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고운데. 90년생 무리한 일 처리는 오히려 구실을 부른다.



43년생 지나간 연인에 연 연마라. 55년생 현재 위치를 생각하여 남의 험담하지 않도록. 67년생 평소 쌓아둔 신용으로 조력자를 만나다. 79년생 교만으로 직장에서 비난받을 수 있으니 겸손해야. 91년생 행동반경이 좁아지니 청결에 힘써라.



44년생 목돈이 들어오니 소문내지 않도록. 56년생 종교나 정치에 관여 말고 할 일 목록히. 68년생 가정사가 풀린다. 80년생 이득이 적어도 내일을 위해 소탐대실하지 않도록. 92년생 관재구설에 휘말릴 수 있으니 전화금융사기 유의해야만.



45년생 3시 지나 돈 문제는 해결된다. 57년생 문서운이 있으니 매매에 이득이 발생. 69년생 충동적 여행은 사서 고생한다. 81년생 종이 절이 싫으면 불평하지 말고 종이 떼내야 할 텐데. 93년생 득과 실을 비교하지만, 돈에 대해 인색하지는 말자.



46년생 뜬소문에 휩쓸려서 손재수가 따르니 확인하여 실행. 58년생 회식 자리에서 말조심할 것. 70년생 건강은 젊어서 예방하는 것이 최선. 82년생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라고 했으니 힘내자. 94년생 모르는 사람에게 굳이 조언할 것 없다.



47년생 동료와 의견을 화합하여 진행하도록. 59년생 영업에서 이득이 생기니 힘써라. 71년생 감정조절을 잘해야 할 것. 83년생 집안의 집모사니를 정리하여 운을 개선하자. 95년생 명의의 이치는 예측과 우연성도 함께하여 신神의 학문이라 할 수.



김상회의四季 검약과 덕

근대 경제를 일구고 빛낸 고 정주영 회장은 검소의 대명사, 그러한 남편의 아내로서 역시 검박하기 이를 데 없는 부인 변 여사님은 1980년 어느 날 가회동 자택에 도둑들이 마주하자 얼어 붙어버렸다. 도둑들은 여사님의 머리에 휘발유를 붓고는 소리를 지르면 불을 붙이겠다고 겁박을 하고는 귀중품을 찾아 여기저기를 뒤집었으나 집안에는 20년 된 소파와 텔레비전 한 대가 고작이었다고 한다.

무슨 재벌 집이 이러냐고 기가 막혀하는 도둑들에게 당시 월급 이백만 원과 아들 결혼식에 주려고 준비해 놓았던 시계를 주며 이겨라도 가져가라며 내놓았던단다. 정 회장께서는 구두 한 켤레도 닳을 때까지 그것도 밟장이 닳으면 쟁을 박아 신고 다닌 것으로 유명하다. 자신은 철저하게 검약했으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인색하지 않았다. 사업가로서의 패기와 해안을 별개로 하더라도, 현대그룹의 주계열사가 위치한 울산에는 직원들을 위해 사택을 짓고, 근로자들의 자녀들에게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학비를 지원하는 등의 혜택을 나누는 것을 기쁘게 생각했다.

또한, 울산에 유일한 대학병원인 울산대학병원을 비롯해 현대예술회관 한마음회관 미포복지회관 등의 문화 여가시설의 건축은 기업이 터전을 함께 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이익을 회향하고자 한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울산 동구 주민이 시내로 수월하게 나갈 수 있도록 현대자동차 공장 인근에 ‘아산로’를 지어 울산시에 기부하기도 했다. 소 떼를 몰고 북한을 찾는 모습이 신문 지면에 실렸던 것이 생각난다. 그 숫자는 함께 1001마리였던 것으로 한 마리에 분명 어떤 의미가 있을 것으로 1차로 보면 500마리 중 백 마리는 임신 한 암소였던단다. 아름다운 배려 덕의 회향이 아니겠는가.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 장 규	편집국장	윤 휘 중
인 색 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662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766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학습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 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결합형 �도쿠

153문제

스도쿠 3650

컬러 �도쿠 110

주사 �도쿠 100

문제출제: 손호성

신문은 고난이도의 월드파일을 증가시킵니다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4				6			7
		3					6
	9				1		5 4
2 8							6 1
1 6		9					2
3							7
8			4				9

			2 3	7		6	
		4					
			9 4				1
				8			1 9
8 9			3				
1			5 2				
						2	
3		2 6 9					

6 8 9 2 1 7 4 5 8	5 9 2 1 4 7 6 8 3	3 8 1 9 2 8 9 7 6	8 2 4 8 7 6 9 9 1	1 9 6 8 9 2 7 8 2	7 9 8 1 2 9 8 6 2	8 1 8 7 6 9 2 2 9	9 7 2 8 1 6 8 9	2 6 9 9 8 2 8 1 7
7 2 1 8 6 9 2 9 8	9 8 2 1 2 7 9 8 6	8 9 6 2 9 8 2 7 1	2 9 7 9 8 1 6 8 7	2 8 9 6 1 9 8 2 7	6 1 8 7 8 2 9 9 2	1 2 9 2 7 6 8 8 9	8 6 8 9 9 1 7 2 2	9 7 2 8 2 8 6 1 9

업무에 따라 월급 달라진다 공공기관 129곳 ‘직무급’ 도입

공공기관 직무급제 도입 21곳 늘어
획일화 벗어나 고난도 업무자 수혜
공기업·준정부기관 도입비중 커

지난해 직무급제를 도입한 공공기관 수가 전년과 비교해 21곳 늘었다. 이에 따라 작년 말 기준 국내 공공기관의 근 70%가 해당 연봉 체계를 도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직무급제는 기본연봉 및 성과연봉으로 구성된 기존의 연봉제 보수체계에 직무급을 더한 것이다. 3가지로 세분화해 연봉을 지급한다. 이는 근무기간이나 직급에 따른 획일화에서 일정 부분 벗어나, 고난도 업무를 맡는 직원에게 월급을 더 많이 주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도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실적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올해는 노무사와 대학교수 등 전문가 19인으로 구성된 ‘직무급 점검단’을 꾸려 조사를

실시했다. 전국 총 186개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직무급을 도입한 기관 수는 129개로 전체 공공기관(186개)의 69.4%에 달했다. 2023년(108개)에 비해 21개(19.4%) 증가한 수치다,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서 도입 비중이 컸다. 총 87개의 공기업(32곳)·준정부기관(55곳) 가운데 81곳(93.1%)이 직무급을 실시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양적으로는 직무중심 보수체계가 점차 정착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는 99곳 중 48곳(48.5%)에서 실시 중이었다. 기타 공공기관 역시 비중이 전년(46.4%)보다 소폭 늘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부 기관은 직무급을 기본급에 반영하는 등 직무중심 보수체계를 설계함에 있어 우수한 성과

를 거뒀다”며 “직무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직무전문관을 선정하는 등 직무중심 인사관리의 질적 수준 제고 성과가 확인됐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공기업·준정부기관 점검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에 전달해 추후 실시되는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기타공공기관 점검 결과는 각 주무부처에 전달해 부처 평가에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9개 우수기관에 대해선 총 인건비인상률 인센티브(0.1%포인트)를 지급한다. 이번 점검에서 유형별 최우수로 꼽힌 기관은 ▲한국남부발전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식진흥원이다.

기재부는 직무 중심의 보수체계의 지속적 확산을 위해 오는 10월 우수기관 사례집을 발간한다. 오는 5월과 6월에는 전체 공공기관(331개) 대상으로 직무급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한국중부발전, 스미토모 USA, KOMIPO America, PPH 관계자들이 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부발전

중부발전, 美 신재생·가스발전 사업 확장

스미토모 USA와 공동추진 업무협약

한국중부발전은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스미토모 USA, Perennial Power Holding s’(이하 PPH, 스미토모 USA 자회사)와 미국 신재생 및 가스발전사업 공동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기점으로 미국 내 신규 신재생과 가스발전사업에 관련된 개발, 기자재 조달, 건설,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전 단계에서 지속적인 협력 및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중부발전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중부발전의 발전 운영 노하우와 스미토모의 사업개발 역량의 시너지 효과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중부발전의 미국 현지 자회사인 KOMIPO America는 현재 텍사스주에서

2개의 대용량 태양광 사업과 캘리포니아주 ESS사업을 성공적으로 개발 후 운영 중이다.

특히, 지난 2022년 준공한 콘초밸리 태양광 사업은 사업 초기 단계부터 주도적 개발을 진행, 약 1100억원 규모 국산 기자재 적용 및 수출 성과를 냈다.

PPH는 신재생과 화력, BESS 사업추진을 목적으로 2002년 설립해 미국 내에서 총 4GW(기가와트) 규모의 신재생, 가스발전사업을 투자해 운영 중이며, 3.5GW의 신규사업 개발을 진행 중이다.

이영조 중부발전 사장은 “본 협약으로 미국 신재생 및 가스발전사업 확장을 위한 주춧돌이 마련됐다”며 “양사 간 상호 신뢰 및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신규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지난해 장애인 고용률 3.21%… 소폭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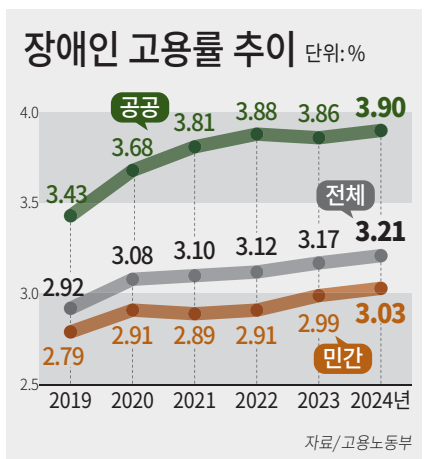
민간 3.03%… 의무 고용률 못미쳐
1000명 이상 기업서 증가세 견인

지난해 장애인 고용률이 전년대비 소폭 개선되면서 상승 추세를 보였다. 공공 부문은 의무 고용률을 상회했으나, 민간은 여전히 의무 고용률에 미치지 못했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장애인 의무고용대상인 국가·지방자치단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사업체 총 3만2692개의 2024년 말 기준 장애인 의무 고용현황을 발표했다.

2024년 장애인 고용률은 공공과 민간 평균 3.21%로, 전년 대비 0.04%포인트 올랐다. 장애인 고용인원은 29만8654명으로 전년보다 7331명 증가했다.

정부와 공공기관을 포함한 공공부문



고용률은 3.9%로, 전년대비 0.04%포인트 증가했고, 민간 부문 고용률은 3.03%로 0.04%포인트 늘었다.

민간 부문 장애인 고용률은 상승 추세가 지속되면서 법정 의무 고용률(3.1%)과의 격차가 0.07%포인트로 좁

혀졌지만, 여전히 의무 고용률보다는 낮다. 법정 의무고용률과의 격차는 1991년 의무고용제도 시행 후 최저 수준이다.

1000명 이상 기업에서 고용률이 0.09%포인트 오르는 등 장애인 고용개선 흐름은 뚜렷하게 나타나며 전체 고용률 상승을 이끌었다.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률은 3.9%로 의무 고용률(3.8%)을 상회했다. 지자체 5.92%, 공공기관 4.05%, 중앙행정기관 3.36%, 헌법기관 2.83%, 교육청 2.52% 순으로, 지자체와 공공기관 고용이 주도했다.

다만,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으로의 장애인 채용은 다소 부진했다. 특히 교원·군무원 등 특정직 공무원 비중이 큰 기관의 고용률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환경부, 환경위기 대응 국제협력 강화

주한 외교공관 기후·환경 간담회 개최

환경부가 환경분야 국제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28일 서울 모처에서 주한 외교공관 기후·환경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탈리아, 브라질 등 64개국의 주한 대사가 참석했다. 또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동북아시아사무소 등 한국에 주재하는 국제기구 관계자 등 90여 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간담회에서 환경부는 주한 대사들을 대상으로 국내 탄소중립·자원순환·물관리 정책 등을 소개했다. 또 오는 6월 5일 제주에서 열리는 세계 환경의 날 행사 계획도 공유했다.

환경부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분절적으로 이뤄졌던 환경 분야 국제협력 창구를 통합하고, 지역·국가별 여건에 따라 세부 양자 논의체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간담회를 국가별 안전도 같이 논의하는 정례 협의체로 키워 갈 계획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지역난방공사, 안전관리등급제 ‘최고등급’

6년 연속 최고수준 안전관리 입증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한난)는 기획재정부가 7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평가에서 ‘6년 연속 최고등급(2등급)’을 획득하며, 최고 수준의 안전관리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28일 밝혔다.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는 정부가 공공기관의 안전역량, 안전수준, 안전성과를 종합 평가해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미흡), 5등급(매우미흡)의 5단계 안전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다만, 2019년 시범도입부터 시행 6년차인 2024년까지 1등급을 받은 기관이 없다는 점에서 한난이 획득한 2등

급은 실질적으로 최고등급으로 평가된다.

이번 평가에서는 한난이 CEO 주도형 안전관리 체계를 통해 경영진이 직접 현장을 점검하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았다는 점과,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드림팀이 각 사업장별 현안을 정밀 분석하고 맞춤형 토달케어 솔루션을 제공하는 ‘Safety Together Patrol’을 운영하는 등 한난만의 차별화된 전략이 좋은 평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루비오 美국무, 캐나다 총선 앞두고 ‘51번째 주’ 병합론 거리
▲베트남·日총리 회담…美관세 대응 협력 등 논의할 듯
/사진 뉴시스

▲트럼프 “젤렌스키, 크림반도 포기 준비됐다 믿어”
▲“日, 2030년 말레이 앞바다에 CO2 포집·저장…올 여름 각서 체결”

▲트럼프 관세에 스위스 프랑, 10년래 최고치…제로 금리 가나
▲“日유권자 80% 이상, SNS 선거 정보 불신…‘갑질 지사’ 영향”



대상
로우태그 도입
당·칼로리 확 줄였다
L1



Life

세계 최대 암학회서
K-항암신약
경쟁력 알려
L2



지친 맘 보듬는 따뜻한 손길... “포인트로 희망 적립해요”

살맛나는 세상 이야기 ESG 경영시대

롯데멤버스

기술이 발전하면서 기부의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모바일, 웹 이용이 일상화되면서 이를 기반으로 한 기부 플랫폼이나 포인트 기부 등이 새로운 기부 형태로 자리 잡았다.

롯데멤버스 자체 리서치 플랫폼 ‘라임(Lim e)’이 지난해 전국 성인 남녀 2만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부 플랫폼을 이용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55.6%)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잡한 절차 없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나눔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롯데멤버스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4300만 회원을 보유한 대표 멤버십 기업으로써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회원들이 포인트를 적립·결제하는 것을 넘어 기부할 수 있도록 엘포인트 앱 내 관련 캠페인을 상시 운영하며 기부 플랫폼 역할까지 수행하는 중이다.



◆환아 어머니 건강 지킴이

롯데멤버스의 대표 기부 캠페인은 지난 2021년부터 꾸준히 진행 중인 ‘맘편한(mom): 포인트 맘케어’다. ‘포인트 맘케어’는 롯데그룹의 사회공헌활동 ‘맘편한’의 일환이며, 엘포인트모금을 통해 소아암 환자 어머니의 건강검진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기부 프로그램이다.

국내 소아암 환자 수는 약 1만 6000명으로 추정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매일 4~5명의 아이들이 소아암 진단을 받고 있는 셈이다. 소아암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평균 2~3년 동안 장기입원과 통원치료를 반복해야 하기 때문에 환아를 포함한 가족들은 오랜 치료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게 된다.

롯데멤버스는 그 중에서도 특히 환아를 케어하는 어머니에게 집중해 포인트 맘케어 캠페인을 기획했다. 소아암 환자의 치료를 위해서는 어머니의 건강이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정작 환자맘들은 자신을 돌볼 여유가 없는 안타까운 현실 때문이다.

이에 롯데멤버스는 롯데의료재단, (사)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와 손잡고 매년 2회씩 포인트 맘케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누적 모금액은 약 2억 5000만원이며 이를 통해 총 460여 명의 소아암 환자 어머니에게 건강검진 혜택을 제공했다.

포인트 맘케어 캠페인 기부금은 엘포인트 앱을 통해 모금된다. 회원이 직접 자신의 보유 포인트를 기부하거나 앱 내 만보견기 미션을 달성하면 주어지는 10포인트를 기부하면 된다. 만보견기 기부금은 롯데멤버스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

선한 영향력 전파하는 기부 플랫폼 기부캠페인 ‘포인트 맘케어’ 운영 소아암 환자 어머니 건강검진 지원

사내 바자회 열어 수익금 전액 기부 소아암 환자 위한 선물 제작해 전달

가족친화제도로 일·가정 양립 실현 여가친화 우수기업 장관상 수상도

◆임직원 함께 나누고, 물품 후원

롯데멤버스는 다양한 사내 프로그램을 통해 엘포인트 회원 뿐만 아니라 임직원들도 소아암 환자 가족을 위한 나눔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사내 바자회를 개최해 수익금 전액을 포인트 맘케어 캠페인 기금으로 전달했으며 임직원들의 참여도가 높아 올해에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임직원들이 급여 지급액에서 남는 우수리를 매월 기부할 수 있는 ‘급여우수리 나눔’ 캠페인을 운영하고 있다. 미취학 소아암 환아를 위한 애착인형, 마스크 스트랩을 직접 만들어 선물할 수 있도록 나눔 키트도 제공 중이다. 이외에도 롯데멤버스는 (사)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로부터 필요 물품을 매월 전달받아 후원하고 있다.

소아암 환아를 위한 캠페인 외에도 롯데멤버스는 매달 새로운 기부처와 기부 대상을 공개하는 월간 포인트 기부 캠페인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엘포인트 회원들에게 보다 다양한 기부 동참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 사회의 소외된 곳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다. 지난해에는 ▲입양아 가정 및 자립준비청년 생활비 후원 ▲수용자 자녀 대상 멘토링 ▲취약계층 난방비 및 의료비 지원 등의 기부 캠페인을 진행한 바 있다.

또한 자연재해, 기후위기 등 특수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기부 캠페인을 오픈해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다. 최근에는 극심한 산불 피해가 이어짐에 따라 이재민 지원을 위한 모금을 진행했다.

◆온정 넘치는 가족 같은 기업문화

롯데멤버스는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로 임직원들에게도 온정을 전하고 있다. 특히 육아를 병행하는 워킹맘·대디를 위해 법정기준에 상응하는 가족친화제도 운영에 힘쓰고 있다. 육아휴직 기준을 만 12세 이하까지 확대했으며 육아휴직 플러스 제도로 법정기간 종료 후에도 최대 연속 1년까지 추가 휴직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임신부 근로자에게 주 2회 재택근무를 제공하며 임직원 자녀 초청 행사 ‘패밀리데이’ 등도 시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조기 도입 ▲유연근무제 ▲분 단위 시차출퇴근제 ▲PC-OFF 시스템 ▲휴가자 가승인제 등을 통해 일과 생활이 조화로운 근무환경을 조성했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롯데멤버스는 지난해 여가친화 우수기업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가족친화 우수기업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했으며 관련 인증을 꾸준히 획득하고 있다. 올해 1월에는 저출생 위기 극복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해 출산 및 육아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에 앞장선 바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메트로 한줄뉴스



▲스포츠클라이밍 서채현, 월드컵 2차 대회에서 공동 우승 /사진 뉴시스
▲LAL, 미네소타에 밀려 PO 탈락 위기...르브론·돈치치 듀오도 역부족

▲주춤한 선두 LG-뒤쫓는 한화 맞대결...10개 구단 9연전 돌입
▲김광현 3경기 연속 패·양현종 6경기 무승...1988년생 동갑내기 수난

▲김효주, LPGA 세브론 챔피언십 연장 끝 준우승...사이고는 첫 우승
▲노백, 그리핀과 PGA 취리히 클래식 제패...100번째 대회 만에 첫 우승